

# 청송

재 중 조선인 총련 합 회  
旅中朝鮮人总联合会

2026년

03

루계:24

<http://www.lzchongsong.com>





## 쑥떡만들기

예로부터 해마다 봄철이 오면 쑥으로 만든 떡을 먹어야 그 해에 앓지 않는다고 하여 어느 집에서나 쑥떡을 만들어먹곤 하였다.

쑥떡은 그 가지수가 많을뿐 아니라 약효가 높고 맛 또한 독특하다. 쑥떡은 간단한 방법으로 가정들에서 만들어먹을수 있다.

쑥떡은 백미뿐 아니라 밀, 수수, 강냉이와 같은 여러 낱알재료로도 만들수 있는데 다른 떡들에 비하여 쫄깃쫄깃하고 독특한 향기와 정유물질로 음식의 변질을 막고 인차 굳어지지 않는 등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있다.

쑥떡만들기는 2016년 5월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 차례

## CONTENTS

### 혁명활동소식

- 1 ---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한 폐회사
- 4 ---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력타격훈련 진행
- 6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식수절에 즈음하여 새별거리에서 나무를 심으시였다
- 7 --- 3.8국제부녀절기념공연 성황리에 진행
- 9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천성청년탄광에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고 탄광로동계급을 격려하시였다

### 총련합회소식

- 11--- 위대한 조국,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총비서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립니다.
- 13---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 1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 19---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강대한 조국이 있다
- 20---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다
- 21--- 당 제9차대회소식에 접한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들의 반향
- 23--- 애국애족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결의를 다진다
- 25--- 녀성의 행복
- 26--- 우리 조국력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정치적사변
- 27--- 재중청년협회에서 2026년 1차 회의진행
- 28---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밝혀주신 대미, 대한관계에 대한 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발취)

### 조국소식

- 30---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기념 대공연 진행
- 32--- 당 제9차대회 결정관철 위한 평양시군민련환대회 및 군중시위
- 35--- 전국의 선거자들 최고인민회의의 제15기 대의원선거에 참가
- 36---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진정과 축하속에 새별거리에서 새집들이 시작
- 38--- 식수절을 맞으며 각지에서 나무심기 진행
- 39--- 전국의 시, 군책임일군들 삼광축산농장을 참관
- 40--- 생물분해성종이에 의한 지면피복재배방법

## 동포소식

- 42--- 연길시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중심, 40년간 민족문화 전승에 앞장서
- 43--- 심양시조선족녀성협회 3.8국제부녀절 경축행사 성황리에

## 중국소식

- 45---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4기 제 4차회의 진행
- 45--- 3월부터 이런 새 규정들 우리 생활에 영향 미쳐!

## 조종왕래

- 47--- 跨境列车畅行无阻, 中朝合作再启新程
- 49--- 中国国航北京至平壤直飞客运航线复航

## 국제소식

- 50--- 이란, 《미국과 이스라엘은 참혹한 대가 치를 것》
- 50--- 이란 정부, 하메네이 순직 성명 발표
- 51--- 미국 50여개 도시 대 이란 전쟁 반대 시위 폭발
- 51--- 쿠바 국가주석, 《모든 침략자들은 불굴의 저항에 직면할 것》
- 52--- 《인터날쇼날》의 창작가들
- 54--- 페르샤만

## 상식

- 56--- 명 리 답 부
- 58--- 일상에서 혈압 낮추는 방법
- 59--- 교구마
- 59--- 단어발음에서의 말소리변화

## 런재소설

- 61--- 장편소설 립 껍 정

앞표지:참된 삶을 누러가는 우리 여성들

##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에서 한 폐회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에서 폐회사를 하시였다.

폐회사는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대표자동지들 !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는 상정된 모든 의정들을 책임적으로 토의결정하고 자기 사업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당력사에서 아홉번째로 되는 본 대회는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이 힘있게 진척되고 세계정치정세가 심각히 격변하는 시기에 열린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수백만 당원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간고했던 우리의 지난 5 년간의 위대한 투쟁을 성스러이 총화하는 대회장에 충성과 애국의 마음을 엮고 더 긴장된 창조투쟁, 로력투쟁을 벌리면서 당대회 사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전세계의 이목도 조선로동당이 어떤 혁명적인 전략과 투쟁방침을 제시하고 자기 위업을 어떤 새로운 높이에서 전진시키려고 하는가 하는데로 집중되었습니다.

이번에 모든 대표자동지들이 당과 인민의 기대를 무겁게 자각하고 맡은 사명수행에서 고도의 신중성과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기에 본 대회는 목적인바를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대회의 모든 사업과 일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총화할수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는 참으로 간고한 투쟁의 위대한 총화이고 새로운 령정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전당의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대표하여 상정된 의정들을 성과적으로 토의하는데서 하나같이 진지하고 적극적이며 책임적

인 노력을 기울여준 전체 대표자동지들에게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일편단심 당을 총직하고 견결하게 받드는 특유의 기개로써 우리 당대회에 크나큰 고무와 힘을 실어주고 대회사업의 성과를 담보해준 전당의 당원동지들과 온 나라 인민들, 전체 우리 군대 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대표자동지들!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는 우리 당과 혁명의 현 국면을 보다 유리하게 전변시키고 국가사업의 모든 방면에서의 점진적이며 안정적인 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새로운 단계에로 고조시켜나가는 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하여 총결기간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정확히 분석하고 총화지음으로써 우리 사상과 위업의 정당성 그리고 우리 사업의 옳바른 방향성이 다시금 입증되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사업들에서 성과를 확대할 수 있다는 명확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달성해야 할 뚜렷한 과업과 목표를 내세우고 그 완수를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우리 국가의 전반적 위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기를 열어 나가는 투쟁을 더욱 신심있게 다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시대 당건설로선의 요구, 더 심화되는 투쟁 단계의 혁신적인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가일층 높여나갈 수 있는 담보가 주어진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조선혁명의 앞길에 새 표대를 세워준 본 대회의 사업성과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전도에 대한 절대적인 사명감, 시련속에서

더 억세여지고 승화되는 우리만의 힘과 자신심의 시위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사에 또 하나의 리정표를 세운 정치적 사변으로 빛날 것입니다.

대표자동지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리상사회로 가는 전진도상에서 반드시 경과해야 하는 심각한 개조투쟁, 변혁투쟁이 또 다시 우리앞에 놓여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아름답고 과제와 거창한 계획들을 결행해야 하는 필수불가결의 투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길은 명백하며 승산은 확고합니다.

류레없이 복잡다단하고 격변하는 현 세계에서 추호의 흔들림도 모르고 옳바른 국가건설전략, 정확한 혁명의 진로따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에 보다 확신성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니고 있는 크나큰 자부이고 긍지입니다.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가 제시한 전망계획들과 투쟁과업들은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신심과 락관, 애국의 열정과 기개를 북돋아주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는 고무적기치로 될 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한마디로 전면적 발전기를 개척한 투쟁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결실로 이어나가자는 것입니다.

지난 총결기간 쟁취한 성과들을 조국과 혁명, 인민의 재보로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모든 분야에서 보다 실제적인 개선과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는 사상과 정신이 본 대회에 관통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 제 9 차대회 의 사상 과 정신 을 투쟁 과 전진 의 기치 로 높이 들고 혁명 실천 에 일관 하게 구현 하여 전당 강화 의 새 전성기 를 열어 나가야 할 것 이며 경제 와 국방, 문화 를 비롯 한 각 분야 에서 진일보 를 이룩 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새 5 개년 계획 을 년년 이 드팀 없이 수행 하는 것 과 함께 그 과정 을 확실 하고 고무 적 이며 의의 있는 자랑 스러운 결과 들로 전환 시켜야 합니다.

본 대회가 확정 한 새 5 개년 계획 은 사회 주의 전면 적 발전 을 위한 투쟁 을 보다 확대 심화 시키는 것 을 목표 한 계획 으로서 앞으로 어떤 사상 적 관점 과 태도 로 일해야 하며 당 과 인민 앞 에 어떤 실천 적 성과 를 내놓 아야 하는 가 하는 요구 를 제기 하고 있 습니다.

이처럼 중대 하고 도 책임 적인 과제 수행 의 중임 은 전체 대표 자 동지 들 과 새로 선출 된 우리 당 중앙 지도 기관 에 지워져 있 습니다.

오늘 의 이 대회 에 참가 하여 대회 의 사상 과 정신 을 누구 보 다 잘 알고 있 으며 전당 의 당원 들 과 전체 인민 들 의 신뢰 와 기대 를 안고 당 대회 결 정 을 직접 채택 한 대표 자 동지 들 부 터 가 새로 운 력사 적 투쟁 의 앞 장 에 서야 합니다.

전체 대표 자 동지 들 은 이 시각 을 더 과감 한 분투 와 노력 의 새 출발 로 간주 하고 이제 부 터 당 제 9 차 대회 결 정 관철 을 위한 투쟁 의 전 련 에서 힘차 게 일해 나가야 하며 일터 와 초 소 들 에서 핵심 적 역할 을 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우리 당 과 국가 의 중진 을 이루 는 당 중앙 지도 기관 성원 들 의 활동 은 언제나 정확 하고 책임 적 이고 진취 적 이여야 하지만 오늘 조국 과 혁명, 당원 들 과 인민 들 의 요구 와 기대 는 비할 바 없이 높아 졌 습니다.

모든 당 중앙 지도 기관 성원 들 은 대회 앞 에 다진 맹세 를 항상 되새 기고 막중한 사명 감 을 수시 로 자각 하면서 당 과 국가 사업 을 책임 적 으로 떠메 고 나가야 할 것 이며 제 9

기 기간 에 자기 부문, 자기 지역, 자기 분야 를 부단 한 개선 과 새로 운 발전 에로 적극 이끌 어야 할 것 입니다.

해당 부문 과 단위 의 정치 적 참 모 부인 당 조직 들 이 당 대회 결 정 관철 을 위한 조직 정치 사업 을 더욱 실속 있게, 참신 하게 벌려 나가야 합니다.

전당 의 당 조직 들 은 5 년 간 의 투쟁 계획 을 당원 대 중 의 집체 적 지혜 에 의거 하여 년차 별 로, 세 부 적 으로 명확 히 세우고 대 중 의 정 신 력 과 창조 력 을 깡그리 분출 시키기 위한 당 적 지도, 정치 적 지도 를 심화 시켜 내세 운 목표 를 빛 나게 달성 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특히 당 대회 결 정 관철 의 첫 해 인 올해 부 터 기세 를 올리고 투쟁 력 을 배가 하면서 계획 을 드팀 없이 성과 적 으로 완수 함 으로서 5 개년 계획 수행 의 돌파 구 를 반드시 열어 제껴야 합니다.

모두 다 당 제 9 차 대회 가 제시 한 투쟁 강령 을 높이 받들고 조국 번영 의 년대 기 에 또 한 페이지 를 아로 새길 거창 한 새 변혁 의 시대 를 힘차 게 개척 하기 위하여 일심 분투 해 나갑시다.

이제 할 대회 의 폐회 선언 은 장엄 한 5 개년 계획 의 서막 을 여는 순간 이며 긴장 한 올해 2026 년 투쟁 의 출발 신호 탄 으로 됩 니다.

대표 자 동지 들 !

굳은 의지 와 신념, 확신 과 자신 심 을 가지 고 영광 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 민주 주의 인민 공화 국 의 무궁 한 번영 과 우리 인민 의 복리를 위해 비상 한 각오 로 일어 납시다.

나는 모든 대표 자 동지 들 과 전당 의 당원 들, 온 나라 인민 들 과 인민 군 장 병 들 의 드높은 혁명 적 기세 와 과감 한 투쟁 에 의하여 본 대회가 제시 한 로선 과 정책, 결 정 들 이 반드시 빛 나게 관철 되 고 우리 당 과 혁명 발전, 사회 주의 건설 에서 새로 운 력사 적 전환 이 일어나 리 라는 것 을 굳게 확신 하면 서 조선 로 동 당 제 9 차 대회 폐회 를 선언 합 니다. (끝)

#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력타격훈련 진행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력타격훈련이 3월 14일에 진행되었다. 훈련에는 600mm 초정밀다련장방사포 12문과 2개의 포병중대가 동원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화력타격훈련을 현지에서 참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훈련의 목적에 대해 말한다면 그 목적은 군대가 자기 할 일을 하게 하자는데 있는것뿐이라고 력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훈련이 목적인바 이상의 과장으로 우리에게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있는 세력 즉 420km 사정권안에 있는 적들에게는 불안을 줄것이며 전술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한 깊은 과악을 주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분명히 오늘의 훈련은 우리의 방위태세, 전쟁억제력을 검열하기 위한 정상적인 훈련이며 앞으로도 수시로 진행될것이라고 확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행한 미싸일총국장 장창하대장에게 훈련지휘를 위임하시고 화선에 나가시여 사격방법에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중앙지휘소에서 장창하대장이 사격구령을 내렸다. 하늘땅을 찢는 폭음을 터치며 방사포병중대의 파도식사격이 진행되었다. 발사된 방사포탄들은 364.4km계선의 조선동해 섬목표를 100%의 명중률로 강타하며 자기의 집초적인 파괴력과 군사적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격훈련을 보시고 포병구분대 군인들이 최신식방사포무기체계를 훌륭히 다룰수 있게 준비된데 대하여

치하하시고 600mm 초정밀다련장방사포의 전투적성능에 대하여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였다.

《정말로 대단히 무서운 그리고 매력적인 무기이다.

세계적으로 이 무기체계의 성능을 평가하는 전술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수년간은 그럴것이다.

하지만 그때 가면 우리도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것은 분명하다.

나는 이런 무기체계를 만들어낸 우리의 국방과학자들에게 늘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우리가 보유한 강력한 공격력은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철저히 방위를 위한것이다.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 곧 믿음직한 방위력이기때문이다.

말그대로의 전쟁억제수단이다.

하지만 방위적성격의 이 억제수단들이 국가주권안전에 대한 외세의 무력도발과 침공을 예방하지 못할 경우 이 방위수단들은 즉시 제 2의 사명 즉 거대한 파괴적공격수단으로 사용될것이다.

루차 말했듯이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타격범위내에 있는 상대측 군사하부구조는 절대로 견디여내지 못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공고한 평화를 쟁취할것이다.

평화는 바라는것이 아니라 지켜내야 하는것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대의 각급이 당의 훈련혁명방침을 틀어쥐고 실전환경에서의 실용적실동훈련을 강도높이 조직전개하며 적들의 그 어떤 도발도 강력한 힘의 압도로써 철저히 제압할수 있게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끝)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식수절에 즈음하여 새별거리에서 나무를 심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식수절에 즈음하여 3월 14일 새별거리 못가공원에서 나무를 심으시었다.

당과 정부의 주요지도간부들과 새별거리에 입사한 참전렬사유가족들, 화성구역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 혁명학원 원아들이 식수사업에 참가하였다.

온 나라 인민의 정의심이 모여오는 수도의 새 거리, 우리 세대의 영예이고 우리 국가의 자랑인 새별거리에서 뜻깊은 식수를 하게 된 참가자들은 크나큰 걱정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동지가 식수와 관련한 발언을 하였다.

리일환동지는 2026년 새봄의 시작과 더불어 진행하는 오늘의 식수모임은 조선의 영광스러운 존엄의 력사에 새 페이지를 아로새긴 참된 애국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이 언제나 푸르른 젊음으로 길이 번영하기를 바라던 렬사들의 그 념원을 빛내이려는 성심의 발현이며 조국산천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수도의 환경을 보다 훌륭히 꾸려나가려는 숭고한 의지의 표시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모두의 가슴속에 소중한 간직된 한결같은 뜻과 마음도 오늘 여기에 함께 심게 된다고 하면서 그것은 영웅들에 대한 가장 진실한 사랑과 감사이며 그들처럼 열렬하고 변함없을 애국의 사명과 마음이라고 언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집들이의 기쁨이 넘쳐나는 새별거리의 풍치를 더해주시며 참전렬사들의 심혼을 품어안고 키를 돋구게 될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에 더욱 강대해지는 우리 조국의 력사와 함께 영웅전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고 필승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가는 우리 세대의 참된 모습이 비끼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참가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번영하는 수도의 새 증견자로 될 나무들을 정히 심으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전렬사들은 나서자란 고향산천과 부모처자들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한 열의 인간들이었다고, 이역의 전장에서 우박치는 철화속을 누비면서도 조국에서 정히 안고 간 한줌의 흙이 주는 고향의 정취, 아름다운 추억을 백절불굴의 영웅성으로 승화시킨 사상정신력의 강자들이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려사들의 고결한 정신이 이 땅에 소중히 깃들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애국의 기등을 억척으로 세워주고 세세년년 후손들을 가장 정의로운 인간들로 억세계 키우는 자양이 되기를 기원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애국심이야말로 한계를 초월하는 기적의 힘을 낳게 하는 열정의 샘줄기이며 창조와 변혁의 원동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부흥강대한 나라,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라고 확언하시었다.

위대한 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애국의 철리, 애국의 진가로 새겨안으며 참가자들은 나무심기에 정성을 다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새별거리에서 진행된 뜻깊은 식수는 무궁번영할 우리 수도와 위대한 내 조국에 청신함을 더해주고 인민의 마음속에 참다운 애국의 열원을 깊이 심어준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끝)

### 3. 8 국제부녀절기념공연 성황리에 진행

세대와 세대를 애국의 한피줄로 이어주며 아름다운 미래를 가꾸어가는 우리 녀성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 뜨거운 축하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3월 8일 평양체육관에서 국제부녀절기념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꿈결에도 뵈고싶던 자애로운 아버이를 모시고 3.8절을 가장 행복한 명절로 기념하게 된 녀성들의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이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영광의 순간을 고대하던

참가자들의 격동이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로 세차게 분출하였다.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녀맹중앙위원회 일군들, 평양시안의 기관, 기업소의 모범적인 녀성일군들과 로력혁신자, 공로자들, 녀성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표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전국의 녀성들에게 보내시는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당 제9차대회가 있는지 얼마 안되는 시기에 녀성들의 명절을 맞이한 감회에 대하여 피력하시면서 혁명의 년대기마다에, 력사의 갈피마다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새겨왔고 오늘도 우리 조국에 사랑을 주고 웃음을 주며 힘과 용기와 승리를 더해주는 혁명의 든든한 기둥인 전체 조선여성들의 남다르고 남모르는 수고에 특별한 감사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여성들이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책임과 역할로써 애국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때 우리의 사회는 더욱 굳건해지고 더욱 번영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전체 여성들이 조국과 혁명, 미래를 위해 부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영원히 아름답기를 뜨겁게 축원하시였다. 이 세상 제일 귀중한 인민의 앞자리에 우리 여성들을 세우시며 우리 국가, 우리 혁명이 이룩한 모든 승리의 월계관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열화의 축복에 관람자들은 솟구치는 걱정을 금치 못하며 열광넘친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서곡 《봄날만 있으라 그대들 앞길에》가 울리는 속에 여성들에게 소년단원들이 온 나라의 축하와 존경이 담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공연무대에는 우리 여성들이 심장으로 높이 부르는 로동당찬가들과 애국주의주제의 명곡들, 민요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랐다.

출연자들은 우리 인민들 누구나 사랑하는 송가들을 열창하면서 조국의 강성을 위한 려정에 묻어가는 순결한 량심과 사심없는 노력을 진주보석처럼 귀중히 여기며 영예와 경의의 가장 높은 단상에 떠올리는 어머니당에 대한 이 나라 모든 여성들의 최대의 경모심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한없이 고마운 당과 제도,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해 바쳐가는 애국충심으로 조선여성이라는 부름을 더욱 고귀하게 빛내어나갈 열의를 강렬하게 분출시킨 여성중창과 합창 《우리 조선 만세》, 혼성중창과 합창 《어머니조선아》로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사회주의대가정의 영원한 화목과 번영, 대대손손 강성할 조국을 위하여 원수님만을 따르는 일편단심의 한길에서 여성혁명가, 공산주의어머니라는 값높은 명함을 변함없이 빛내여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구가한 3.8절기념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끝)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천성청년탄광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고 탄광로동계급을 격려하시였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전면적국가발전의 강력한 주권적담보를 마련하게 될 력사적인 날을 맞이한 인민의 기쁨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3월 15일 전국의 모든 선거구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5기 대의원선거가 실시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을 찾으시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 150 호구 제 48 호분구선거장에서 선거에 참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선거장에 도착하시자 우리 공화국의 최고주권을 인민의 손으로, 인민의 의지로 반석같이 다지는 뜻깊은

선거의 날 오매에도 뵙고싶던 우리 원수님을 꿈만같이 자기들의 선거구에 모시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게 된 이곳 탄광로동계급과 지역인민들의 끝없는 감격과 희열이 열광의 환호로 세차게 분출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순결무구한 충성심과 보석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높은 석탄증산성과로 국가경제의 장성발전에 적극 공헌하고있는 탄광로동계급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며 선거장으로 향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평안남도위원회 책임비서 리경철동지,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와 천성청년탄광의 책임일군들이 정중히 맞이하였다.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인 김재룡동지, 리일환동지, 김덕훈동지,

김여정동지가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거표를 받으시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 지배인 조철호동지에게 투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의원후보자를 만나 담화하시면서 이곳 탄부들과 지역인민들의 믿음과 기대를 조국과 인민의 당부로 무겁게 받아안고 진정한 인민의 대표, 주권활동의 직접적담당자, 정치활동가로서의 책임과 본분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따뜻이 고무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천성청년탄광의 선거자들앞에서 력사적인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탄광로동계급의 깨끗한 량심과 남모르는 수고를 조국앞에, 시대앞에 내세워 가장 값높이 빛내여주시고 온 나라 탄광들을 개혁시키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는 김정은동지의 열정넘친 연설은 만장을 세차게 격동시키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혁명의 걸출한 령도자,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를 우러러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며 열광의 환호를 울리고 또 울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천성청년탄광의 실패와 생산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경제를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장성시키는데서 석탄공업부문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석탄전선을 추켜세우는 사업은 새 5개년 계획의 완수뿐 아니라 나라의 전망적발전에서 전략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심고리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람이 살아가자면 곡물농사를 잘해야 하고 국가가 살아가자면 석탄농사를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적, 국가적으로 공업의 식량인 석탄생산을 중시하고 이 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여야 한다고, 천성청년탄광을 갱내작업의 기계화, 정보화가 실현된 표준탄광으로 건설하는것은 전국의 모든 탄광들의 물질기

술적토대와 탄부들의 로동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전망적인 사업의 시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간고한 승리적 투쟁의 려정을 돌이켜볼 때마다 탄부들의 남모르는 수고가 제일먼저 마쳐오고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였다고, 우리 탄부들은 금방석에 앉혀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최근년간 검덕지구를 리상적으로 전변시킨것처럼 당 제9기기간에 모든 탄광마을들을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탄광마을, 탄광도시로 변모시키자는것이 당중앙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이와 관련한 단기적 및 중장기적인 전략을 토의하게 될것이라고 확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천성청년탄광방문을 기념하여 이곳 탄부들과 로력혁신자들, 일군들과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열광의 환호성이 또다시 천성지구의 산발들을 뒤흔들며 메아리쳤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크나큰 걱정에 넘쳐있는 탄부들을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면서 천성청년탄광의 로동계급이 새로운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더 분발되고 양양된 기세로 당대회결정관철의 첫해를 자랑찬 증산성과로 빛내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아버지의 강렬한 열과 정,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천성청년탄광의 로동계급은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를 지켜선 영예로운 사명감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당 제9차대회 결정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더 높은 애국탄증산으로 과시하며 우리 국가의 륜성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성청년탄광방문은 석탄공업부문의 기술문화적락후성과 종국적으로 결별하고 문명화, 현대화로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력사적인 계기로, 전면적발전으로 향한 우리 국가의 힘찬 전진에 커다란 활력을 장전해준 중대한 정치적행보로 된다. (끝)

## 위대한 조국,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총비서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립니다.

위대한 내 조국의 력사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백전백승사에 승리의 리정표로 아로새긴 2월의 당대회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또다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대성황리에 진행된 감격과 환희가 아직도 우리들의 심장마다에 세찬 격동으로 파도치고있는데 어느덧 조국을 떠날 시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위대한 어버이를 그리며 마음속에 평양을 안고 살아온 저희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의 조국방문이 매번 다 소중한 추억깊은 나날들이었지만 이번처럼 세찬 총격과 무한한 격동, 열화같은 총성과 애국의 일편단심으로 가슴을 불태운 체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조선로동당의 당원이라면, 이 나라의 공민이라면 누구나 가고싶고 오르고싶은 영예의 절정인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축하단이라 높이 명칭해주시며 친정에 온 자식들이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친어버이의 따스한 정으로 숙소도 친히 정해주시고 음식차림표까지 친히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지난 5년간 중중첩첩의 격난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물과 불속도 헤치고 산악도 뚫겨 이 땅위에 거창한 창조의 새 변혁들을 떠올리고 절대적 군사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영웅적인 우리 군인들과 청년들, 인민들도 다 못은 그 영광의 기념행사장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하해같은 은정과 믿음앞에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추대라는 인민의 운명적인 선택, 력사의 성스러운 결정앞에서 그처럼 겸허하게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의 표시라고 무겁게 받아들이시며 당과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책임을 가장 신성하게 가장 막중하게 간직하실것을 맹약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모습에서, 그리고 당대회기념열병식연단에서 위대한 목표를 향한 조선의 시간은 멈춤없이 흐를것이라고 하시며 우리 모두 지축을 울리며 용감히 출발하자고 하시던 그 열렬한 애국의 호소를 들으며 우리들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을 어버이로, 당과 국가의 수반으로 높이 모시고있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롭고 다심한 관심과 배려속에서 조선로동당의 핵심공간육성의 대전당 중앙간부학교와 인민사랑의 대기념비, 보건혁명의 첫 산아들인 평양종합병원, 강동군병원과 새로운 평양번영기로 그 자태 눈부신 화성지구를 돌아보면서 저희들은 조선로동당의 백년대계와 미구하여 맞이하게 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 인민행복의 무궁번영할 미래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특히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기념열병식과 청년학생들의 야회를 비롯한 각종 기념행사에 참가하여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 제일 미더운 청년들을 가지고있고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사는 제일 행복한 인민이라는 자긍심으로 충만된 조국인민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도 바로 이 강대한 조국의 당당한 공민이라는 긍지감이 배가해짐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10 년이 아니라 1 년, 아니 반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전설의 땅이 바로 우리의 조국이고 매일 매순간이 건설이고 창조이며 변혁인 가슴벅찬 오늘의 날과 달들이 곧 조국인민들이 것처럼 긍지롭게 격찬하는 로동당세월이어서 이번 조국방문의 나날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수령의 위대함, 조국의 강건함을 다시 한번 신념으로 새겨안은 나날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조국인민들도 부러워할 특전특혜로 영광의 축하단으로 조국에 불러주시고 천하의 강국으로 솟구쳐오르는 애국신념의 표대를 더 억척같이 다져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재중동포들의 마음도 합쳐 다시 한번 감사의 큰 절을 삼가 올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지금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전체 성원들은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에 대한 한없는 매혹과 흠모,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높이 모시고 애국충성의 한길만을 가고갈 불타는 열망과 결의에 충만되어있습니다.

이번 조국방문의 나날 가장 신성하고 운명적인 체험을 심장에 새긴 저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베풀어주신 크나큰 영광과 배려에 애국충정으로 기어이, 기어이 보답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중국 동북지역에 새겨져있는 항일혁명의 성스러운 사적들을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동포제일주의를 조직강화의 불변의 기치로 높이 추겨들고 권익옹호, 새세대육성, 민족성고수의 3대주력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며 총련합회의 모든 일군들과 회원들을 애국주의와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닌 참된 조선사람으로 살도록 교양하여 누구나가 다 《조국에 대한 노래》의 구절구절을 심장으로 따라 부르며 조국을 위한 애국의 길을 변심없이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없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제정해주시고 해외동포들이 조국을 위한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세심하게 이끌어주는 어머니조국의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고 조선로동당 제 9 차 대회가 가리킨 조국번영의 새 전기, 전면적국가부흥의 성스러운 행로에서 조국인민들과 발걸음을 같이 하는 애국조직, 애국동포들이 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조선로동당의 절대적존엄과 영예, 위대한 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궁번영, 조국인민들과 우리 재중조선공민들, 해외동포들의 삶과 미래는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과 안녕에 달려있습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영광과 사회주의조선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전체 조선인민들과 재중동포들의 존엄과 행복을 위하여 우리들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축하단 올림

2026년 3월 6일

##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최은복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이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축하단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되새겨보며 고향집에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돌아보았다.

축하단은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 평양종합병원 등을 참관하고 주체건축의 새로운 발전상이 응축된 화성거리, 전위거리를 돌아보았다. (끝)





재중총련에서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에 드린 축기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 행사장



조선로동당 제9 차대회 대회장





국가선물관



조선중앙통신

# 평양종합병원



조선중앙통신



민속명절을 맞으며 축하단성원들이  
즐거운 민속놀이를 하고있다.



화성대동강맥주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결성 35돛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조국을 방문하고있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성원들과 체류중 재중동포들이 꽃바구니진정에 참가하였다. (끝)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축하단성원들이 신미리아국렬사릉에 있는 반일애국렬사 황백하선생의 묘에 꽃다발을 올리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왼쪽으로 세번째가 황백하선생의 손녀인 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 김련원회장이자.

#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강대한 조국이 있다

최고인민회의 제 15기 대의원선거에 참가한 해외공민들의 반향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공민들이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5기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였다.

경사스러운 선거의 날을 맞이한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흥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굳은 의지와 강대하고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제 22호 선거구 제 17호분구에서 투표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 1부의장 리순남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머니조국에서 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선거에 참가한 기쁨을 금할수 없다.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진 희열에 넘쳐있는 인민들의 모습은 우리 조국에서만 볼수 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주권이 있지만 우리 공화국정권과 같이 근로대

중의 자주적존엄과 리익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주는 인민적인 주권, 인민의 제도는 없다. 공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결코 어느 나라의 공민들이나 다 지닐수 있는것이 아니다. 자기의 존엄과 초보적인 권리마저 짓밟히고 시시각각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나라의 인민들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수령이 위대하여 조국이 강대하고 인민의 존엄도 빛난다. 천하제일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우리 공화국은 무궁토록 번영할것이다. 우리들은 새 전망목표실현을 위한 력사적진군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의 힘찬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어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친 주체조선의 존엄높은 해외공민조직으로, 애국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겠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원 량금해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새로운 고조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높히 발휘되었다, 공화국정권에 대한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확고부동하다, 국가활동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위용떨칠것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부회장 고영석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오늘 우리 조국은 조선로동당 제 9차대회가 펼친 설계도따라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더욱 가속화해나가고있다. 체류기간 조국의 전변상을 체감하면서 그 누구도 우리 국가의 전진과 발전을 되돌려세울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우리 재중조선인들은 가슴마다에 위대하고 강대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다는 자긍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들어 사회주의조국의 전면적부흥발전에 특색있게 기여하기 위한 애국운동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겠다.



#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다

##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우리 조국에서는 온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력사의 온갓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공화국의 장성발전사에 일찌기 없었던 거창하고도 세기적인 변혁을 창조해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성대히 열리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중대한 결정이 채택되었습니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전체 성원들은 가장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 고매한 인민적품모를 지니시고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 불면불후의 고귀한 력사적위업을 안아오시고 우리 조국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나라로 전변시켜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총비서로 추대되는데 대하여 전적으로 지지찬동하며 열렬히 축하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조선혁명을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참모부로서 당의 령도력과 인민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조선로동당의 최고직책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것은 우리 공화국과 우리 인민들의 끝없는 영광이고 기쁨이며 또 우리 해외공민들의 자랑이고 긍지로 됩니다. 우리모두는 지난시기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의 모든 매 순간순간들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아왔으며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실분은 오직 한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라는것을 모두가 폐부로 느끼고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힘이 솟고 확신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셨기에 백전백승의 길만을 걸어온 우리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더더욱 승리와 영광의 길만을 걸어가리라는것과 또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더더욱 좋은 날만 펼쳐지게 되리라는것을...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전체 성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오늘의 이 긍지와 영광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이를 충성으로 받들어모시며 그이가 가리키는 길이 백전백승의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길만을 따르겠습니다. 또한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펼쳐준 웅대한 설계도를 따라 당대회결정권철을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해나감으로써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입니다.



## 당 제 9 차대회소식에 접한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들의 반향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장 김송미



장장 80 정상 사회주의사상과 위업에 충실하여 자존, 자립으로 존엄높고 강대한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웠으며 국가의 전면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새시대의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인도하는 우리 당의 령도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으로 되는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축하단의 한 성원으로 불러주시고 인생의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고마움의 큰 절을 올립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을 거스를수 없듯이 우리 조국 꼭꼭에서 울려나오는 걱정의 목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기적만을 창조해온 우리 조국이 걸어온 5년기간을 돌이켜보며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질서와 안전이라는 말이 사멸될 정도로 전란과 폭제로 뒤흔들리는 이 행성의 한복판에서도 끄떡없이 오랜 세월 우리 인민이 념원했던 부흥의 꿈과 리상을 설게해준 어머니 조선로동당! 저는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그리고 조국과 조직으로부터 부여받은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장의 신성한 사명과 중임을 자각하고 조선로동당 제 10 차대회를 향한 우리 조국인민들의 힘찬 보무에 발걸음을 맞춰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조선사람이라는 긍지를 소리높이 웨치며 우리의 운명이요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충정으로 받들고 그이 따라 나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정의이요 무조건 이긴다는 불변의 신념으로 결성세대들이 물려준 애국의 바통을 깨끗이 이어나가는 김정은해외애국전사가 되겠습니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부회장 리복순



이번 대회는 우리 인민이 당의 령도아래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력사적인 순간이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자주, 자립, 자위의 국가건설사상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로선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갈데 대하여 명확히 제기하고있습니다. 저는 당 9 차대회에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이 세가지 리념은 변할수 없으며 이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우리 공화국의 믿음직한 해외동포청년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당 제 9 차대회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조국에 이바지할 애국운동의 높은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원수님의 해외전사로 거듭날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사무장 최은성



수천만 조선인민을 령도하여 강국건설의 새 시대를 펼치고 있는 혁명의 전위대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사명감과 강력한 자부심, 무비의 전투력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지위와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오며 이 땅의 모든 세대들이 숙원해 온 강대한 힘과 값높은 존엄, 눈부신 룡성을 력사우에 거연히 떠올리면서 력사적인 당 제 9 차대회를 뜻깊게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태어나 자라난 새세대 조선청년으로서 조국과 숭결을 맞추며 우리 당이 가르키는 길을 따라 원수님을 충직하게 받드는 길에서 조선공민된 본분을 다할것입니다. 애국으로 조국을 받들고 위훈으로 조국을 지켜온 조국 청년들의 모습을 새기며 새세대 해외청년기수로서 더 활발히 사업에 헌신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 김명옥



이번에 우리 조국에서는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가 성대히 열렸으며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조국은 지난 5년간 모든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가는 곳마다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들을 창조하고 정말 믿기조차 어려운 세기적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정말 힘이 솟고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합니다. 저는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해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그이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며 당면하게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유산이고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대를 이어 나갈 후비대 재중조선인청년협회의 한 성원답게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회원 조수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또다시 높이 추대한 소식에 접한 끝없는 환희로 설레이는 이 마음을 정말이지 진정할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수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였기에 조국과 떨어져 멀리이역에 살면서도 조선사람이라는 남다른 영광과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가슴펴고 땀땀이 조국인민들과 어깨 나란히 해나가고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저는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에서 밝혀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강령적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애국사업에 힘과 지혜, 열정을 다바쳐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집니다.

# 애국애족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결의를 다진다

재중총련결성 35주년을 맞으며



심연택 심양시지부 지부장

오늘은 3월 3일이다. 세월은 흘러서 어느덧 재중총련의 역사가 35년이 되었다.

35년은 인류력사에서 한순간에 불과했지만 재중총련이 걸어온 35년은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의 년대들이다.

책장에 고스란히 잠자고 있는 문서를 펼쳐보니 35년동안 걸어온 발자취들이 담겨있다. 누렇게 변한 오래된 사진들도 있다. 오랜 문서들과 사진들을 보는 순간 초창기 공민선배들이 밤을 새워가며 재중총련을 창립하기 위하여 사업하던 장면들이 필립처럼 스쳐간다.

재중총련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1971년전에는 북경, 상해, 심양 등 일부지역에서 공민활동을 벌려왔고 1971년부터 80년대, 90년대는 동북지역에서 조선공민들이 지역적으로 조선공민학습조형식으로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재중조선공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조직을 묶어 공민들의 애국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것은 1991년 3월 3일부터이다.

1991년 3월 3일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결성된 날이다. 그때의 명칭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재중조선인본부 《략칭: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이고 존엄높은 주체형의 해외조선공민조직으로 자기의 사명과 본분에 맞게 공민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면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활동을 전개했다. 그때 주소는 심양시 황고구 태평촌지역이었다. 1995년 2월에 현실적요구에 맞게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를 재중조선공민총련합회로 개칭하고 1996년 3월에 심양시화평구서탑거리로 자리를 옮겼다. 1998년 4월

1 일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로 개칭하고 2003년 5월에 본부를 독립적주택인 지금의 심양시 황고구 삼장가 3-2로 옮기었다.

돌이켜 보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35년의 역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곁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은혜로운 역사이고 조국에 운명을 얹고 애국운동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온 재중총련에 대한 조국의 다심한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의 역사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조국을 잊지 않고 조선사람이라는 뿌리를 지키기 위하여 70, 80년대 학습소조형식으로 제각기 활동하던 우리들에게 정연한 조직체계를 이룬 통일적인 애국조직을 세워주시고 청사까지 마련해주시었을뿐만아니라 활동방향과 방법도 가르쳐주시었다.

또한 꿈결에도 그리운 조국에 일군들을 불러 영광의 단상에 올려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어 한생 잊을수 없는 가보로 남기게 은정도 베풀어주시고 그 사랑도 모자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재중공민들이 조국에서 조국인민들과 똑같은 대우를 향유할수 있도록 크나큰 사랑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까지도 채택해주시어 공민들의 권익을 만방으로 보장해주시고 현시대에 맞게 재중총련이 떠메고 나아갈 3대과업까지 명확히 밝혀주시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걸어온 35년의 역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사회주의부강조국의 찬란한 래일, 우리 재중동포들의 존엄과 빛나는 삶,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공지와 자부심을 뼈부로 절감한 감동과 격동의 나날이었으며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여 걸어온 애국충정의 역사이다.

35년동안 애국의 마음으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과 조종친선의 공고와 발전을 위하여 이룩한 성과들은 세월과 더불어 재중총련역사에 기록될것이다.

재중총련이 35년간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지난 복잡다단한 역사의 온갖 소용돌이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에 운명의 피줄을 이어놓고 조국을 위한 길에서, 재중공민들을 위한 길에서 고귀한 한생을 마친 재중조선인운동의 선구자들인 리철재동지, 양영동동지, 황진생동지를 비롯한 총련합회의 로세대 일군들을 다시금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경의를 표한다.

선배들의 뒤를 이어 재중총련을 더욱 강화발전하는데 일군으로서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결의가 솟구친다. 역사는 이어가야 하고 전통은 계승해야 한다.

오늘까지도 그 빛나는 나날들, 그 벅찬 감정들은 영원히 잊을수 없는 추억처럼 저의 마음속에 고정되어 따뜻한 혈맥으로 이어가고있다.

오늘 과업을 실행하는데서 조건과 환경은 어렵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해외동포운동사상이 우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공화국의 두리에 굳게 뭉쳐 애국애족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재중공민들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기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확신한다.

재중총련결성 35돐을 맞은 이날, 저는 재중총련의 자랑스런 역사적축적과 미래에 대한 무한한 기대를 무겁게 깊이 간직하고 가슴을 쪽 찢고 뗏뗏하게, 당당하게 생활과 미래를 개척하며 순결무구한 마음으로 백배해진 용기와 투지로 더욱 빛날 재중총련애국사를 이어나가는 길에 투신할것이다.



## 여성의 행복

총련합회 지도원 김연희

3.8일 세계가 한목소리로 여성들의 존엄과 권리를 가지는 뜻깊은 날인 국제부녀절을 맞으며 나는 여성들의 삶과 행복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여성들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는 순간속에 있으며 일터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수 있는 기회속에 있고, 사회속에서 존중받는 자리에서 더욱 빛난다.

한 사람의 딸로서, 어머니로서, 동료로서, 또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여성들은 수많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세상을 따뜻하게 가꾸어간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많은 여성들이 교육과 과학, 문화와 예술, 정치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허나 지구상 그 어느곳에서도 우리 조선여성들처럼 나라의 꽃, 생활의 꽃, 가정의 꽃으로 떠받들리며 이날을 커다란 기쁨과 희망에 넘쳐 맞이하는 여성들은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표하시고 여성들의 인격을 존중할데 대한 문제를 여성해방을 위한 과업으로 내세우시였다.

이것은 오직 가장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사랑의 법전이였다.

여성들의 가정적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이 사회에 나가 마음놓고 일하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고 여성들이 갖추어야 할 품성까지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마음써오신 우리 수령님은 진정 우리 여성들의 삶의 은인,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위대한 수령의 하늘같은 믿음과 은정속에 온 세상에 빛나는 우리 여성들의 고귀한 삶과 더불어 우리 조국의 오늘도 자랑차고 눈부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쁨 때나 어려울 때나 오직 조선로동당을 자기 운명의 전부로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조국에 승리와 영광을 더해주기 위해 무한한 헌신의 노력을 다 바쳐가는 우리 여성들과 녀맹원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굴함없는 투쟁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으로 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의 여성들이 가장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며 성스러운 위업수행을 믿음직하게 담당해나가고있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무엇보다 중시하시고 그들의 권익을 최상의 경지에 떠올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품이 있기때문이다.

세쌍둥이, 네쌍둥이가 태어나면 이 땅의 한끝까지라도 사랑의 비행기를 띄워주시며 우리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주실수 있는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신 장군님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종업원을 특별히 우대한다는 내용이 규제되어있으며 국가적조치에 따라 8살이하 어린이를 2명이상 키우는 여성들의 로동시간이 줄어들고 정기휴가기간이 두배로 늘어났다. 또한 국가적으로 세쌍둥이, 그 이상의 쌍둥이를 낳아 키우는 여성과 어

린이에게는 담당의사를 두며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것 같은 특혜 조치를 취한다는데 대하여 지적되어있다.

세상에 이런 훌륭한 제도, 고마운 품이 또 어디 있겠는가.

현지지도의 길에서 일 잘하는 녀성일군, 녀성로동자들을 만나실 때면 더없이 기뻐하시며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높이 내세워주시는 분, 두번다시 오지 않는 청춘시절을 조국보위에 바쳐가는 녀성군인들이 그리도 대견하시여 오랜 시간 서계시며 한사람한사람 곁에 세우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분, 부모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고 영예군인의 길동무가 되어 한생을 바쳐가고 병사들을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하는 녀성들을 영광의 단상에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원수님이시다.

우리 녀성들은 외모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와야 한다고 하시며 그들이 즐겨찾는 보석머리빈침을 잘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몸소 《코스모스》라고 상표이름까지 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 나라 수많은 유명무명의 영웅들의 뒤에도, 공로자들과 혁신자들의 위훈에도 그들의 어머니이고 안해들인 우리 녀성들의 대가를 모르는 수고가 헤아릴수 없을만큼 깃들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녀성들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얼마나 복받은 삶을 누리고있는가를 나는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세상을 둘러보면 나라마다 녀성들이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우리 녀성들이 누리는 이런 복되고 긍지높은 삶을 상상도 할수 없다. 참으로 우리 녀성들처럼 대대로 위대한 수령의 품속에서 값높은 삶을 마음껏 누려가는 복받은 녀성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우리 조선녀성들의 존엄이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고 그 행복도 영원하다.

## 우리 조국력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정치적사변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원 김성미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은 최상의 경지에 오르고 그 명성은 온세계를 진감하며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가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오늘 세계정치계와 세계인류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총비서로 또다시 높이 추대한것은 우리 인민의 최상의 행운이고 우리 국가의 더없는 영광입니다.

주체조선의 위대한 영상이시며 승리의 기치이신 자애로운 아버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인민적 품모를 지니시고 우리 조국과 인민을 세상사람 누구나 부러워하는 위대한 조국, 위대한 인민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올려세워주시였습니다.

수도의 황홀한 새거리들과 평양종합병원을 비롯한 보건시설들, 온실종합농장들, 나라의 곳곳마다에 일떠서는 지방공업공장들과 종합봉사시설들, 한쪽의 그림과도 같은 농촌살림집들, 재난을 당한 지역에 일떠선 행복의 보금자리들, 셀수없이 일떠선 기념비적 창조물들과 행복의 웃음넘치는 인민들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우리 조국의 위대한 역사를 수놓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가 어려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참으로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세인이 경탄하는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는 우리 원수님 계시여 우리 조국과 인민의 미래는 언제나 밝고 창창할것입니다.

저는 비록 해외에 살지만 언제나 우리 해외동포들을 한품에 안아 한식술로 자신의 마음 가장 가까이 두시고 친어버이사랑과 정을 거둬 안겨주시며 신년경축행사와 당제 9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한생의 축복으로, 무상의 영광으로 받아안고 조국의 룡성발전을 위한 애국사업에 저의 작은 힘이나마 아낌없이 바쳐나가겠습니다.

## 재중청년협회에서 2026년 1차 회의진행

청년협회에서 3월 10일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는 김송미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는 4 가지 안건으로 진행하였다.

회의는 먼저 당제 9 차대회 기본사상과 기본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대회의 주요정책 방향들과 핵심내용들에 대하여 학습하였다.

회의는 3월을 당9 차대회정신의 학습달로 정하고 전체성원들이 심도있는 학습을 진행하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청년동맹 제 10 차대회에 보내주신 서한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75돐에 보낸 서한들을 재학습하도록 포치하였다.

또한 길림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사업과 민족성고수에 더욱 힘을 기울일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하반기사업에 대한 토론과 결론이 있었다.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 제 9 차대회에서 밝혀주신 대미, 대한관계에 대한 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발취)

미국의 패권정책과 전횡으로 세계도처에서 평화와 안전의 근간이 심히 흔들리고 무력충돌사태들이 연발하여 현 국제정세는 더욱 혼잡스러운 방향으로 치닫고있으며 보다 예측불가능한 양상을 보이고있습니다.

힘은 힘을 존중하며 강력한 힘, 핵보유야말로 제국주의적침략야망에 종지부를 찍을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것은 오늘의 세계가 방증하는 진리이며 약육강식의 강도적론리가 지배하는 국제무대에서 작용하는 합법칙적 원리입니다.

미국의 무차별적인 강권행사는 국제적인 반미감정을 키우고 미국의 전횡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속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습니다.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와 평등, 독자성을 실현하려는 진보적인류의 지향은 패권세력의 발악에 정비례하여 더욱 강렬해지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자주력량은 계속 강해질것이며 그의 진보적인 투쟁에 의하여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건설이 더욱 추동될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우리 국가가 서있습니다.

우리 당은 국제관계구도의 본질을 분석하고 정확한 대외전략적방침을 제시하였으며 준엄한 지역정세와 류동적인 국제관계의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미국을 제압견제하는데 대외정치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정면승부의 원칙에서 초강경군사행동과 책략적인 심리전, 강력한 언론전을 배합하여 적들을 련속 압박하였습니다.

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를 완전히 불가역적인것으로, 절대불퇴로 영구고착시킴으로써 우리의 핵포기란 절대로 있을수 없으며 우리와 계속 엇서나가는 보다 큰 위협을 마주하게 된다는것을 적수들에게 똑똑히 인식시켰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적대적시각과 강권으로 체질화된 불량배적 성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처럼 앞으로도 계속 미국과의 대결에 만반으로 준비하며현 최강경자세를 변함없는 대미정책기조로 확고히 견지할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며 그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조미관계의 전망성은 미국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미국이라는 적대적 실체에 준비있게 대처해왔으며 앞으로도 추리해볼수 있는 온갖 형태의 도전행위들에 보다 더 잘 준비되기 위해 지금껏 해온바를 더욱 과감히, 더욱 집중적으로 리행해나갈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외면하고 외세를 등에 업고 각종 도발적인 반공화국침략전쟁시연들의 강도와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우리 경내에 악랄한 뼈라장들을 날려보내는가 하면 나중에는 우리 수도권에 군사적수단인 무인기까지 침입시키는것과 같은 전대미문의 정치군사적도발까지 감행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한국을 우리 국가의 제일가는 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국권과 국익을 침해하는 적수들의 적대행위들을 압도적인 정치군사적힘으로 제압하며 만약 군사적대결을 기도할시에는 한국을 전면붕괴시키고 영토의 완정을 실현할데 대한 새로운 대적투쟁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한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것이라는것입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 남은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있다면 우리 국익에 준한 랭철한 계산과 철저한 대응뿐이라는것입니다.

조로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 동맹관계로 굳건히 다지였으며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를 일관하게 중시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조중로련합을 든든히 구축하고 반패권의 기본축으로 새롭게 출현시켰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80 돛과 국제적인 기념행사를 계기로 우리 공화국이 세계정치흐름을 반제자주어로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정치군사대국임을 국제사회에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대외활동을 철두철미 당중앙의 직접적인 지도와 관여밑에 실행해나가야 한다는것입니다.

모든 대외활동을 철저히 국익수호의 원칙에서 전개해나가야 한다는것입니다.

국익은 오늘날의 치렬한 국가경쟁시대에서 국제관계를 대하는 사고와 관점의 기준이며 국익수호는 우리 국가대외활동의 불변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주변나라들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개화발전시켜나가며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정치외교활동과 교류협력을 보다 적극화해나갈것입니다.

##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기념 대공연 진행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기념 대공연이 26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영웅적인 개척과 불굴의 투쟁으로 승리와 영광의 봉우리를 거연히 떠올린 성스러운 5년간의 려정을 긍지높이 총화짓고 우리 국가의 줄기찬 룡성번영과 전진도약의 새 표대를 세운 위대한 조선로동당에 대한 신뢰심이 전인민적인 송가로 분출하게 될 공연장소는 관람자들의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이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제9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당 제9차대회 대표자, 방청자들, 특별손님들, 재일본조선인총합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총합단 성원들이 공연을 보았다.

서곡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운명도 미래도 모두 맡기고 한생토록 따르는 위대한 어머니 품, 조선로동당에 대한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열화같은 총의심과 흠모심을 반영한 송가들과 애국주의주제의 명곡들이 울랐다.

출연자들은 곡목들을 통하여 인민이 세기와 세대를 이어 갈망해온 숙원을 눈앞의 현실로 펼쳐주고 조국과 인민의 존위와 명성을 려사상 가장 높은 경지에 올려세운 우리 당의 만고의 업적에 열렬한 경의를 드리었다.

당과 인민이 뜻과 정으로 하나의 운명,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세월의 풍

파를 다 이기며 억척의 반석우에 인민이 반기고 환호하는 전면적국가번영의 새 전기를 신심드높이 펼쳐가는 조선의 기상, 조선의 긍지로 총만된 다채로운 종목들이 풍만한 정서와 끝없는 희열을 안겨주며 관람자들의 가슴가슴을 세찬 격동으로 높뛰게 하였다.

위대한 단결과 전진, 승리전통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혈맥으로 이어가시며 부국강병의 찬란한 미래를 당겨오시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무궁한 존엄과 영광만이 있다는 철리를 격조높이 구가하는 명곡들로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따르는 길에서 모든 꿈과 리상을 성취할 혁명적 열정과 일편단심이 활화처럼 분출한 공연은 전인민적송가 《친근한 아버지》로 막을 내리었다.

당 제9차대회기념 대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무한한 영광과 긍지를 안고 배가된 자신심과 총천한 활력으로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한 투쟁행정에서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 전당의 당원들과 전체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기개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 당 제9차대회 결정관철 위한 평양시군민련환대회 및 군중시위



주체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존엄 높은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수반으로 또다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를 안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은 비상한 애국열의와 충천한 자신심에 넘쳐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실현을 위한 장엄한 투쟁의 진군길에 나섰다.

변혁에서 더 거창한 변혁으로 향한 새로운 려정의 출발을 선포하신 절세위인의 열렬한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당과 온 나라가 일시에 궤기해나선 오늘의 거세찬 혁명열은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따라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출기찬 승리를 향하여 전진비약하는 우리 인민의 강용한 정신과 불굴하는 투쟁기상의 뚜렷한 과시로 되고있다.

우리 당대회의 결정을 철저히 완수해갈 전당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의 혁명적열정과 드높은 투쟁기세가 격양되고있는 속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평양시군민련환대회 및 군중시위가 27일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박태성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참가자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안의 일군,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 청년학생들,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성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주창일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견결한 원칙성, 자주적신념과 배짱으로 혁명과 건설을 비약적인 장성과 도약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과 국가의 존엄과 위상은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고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는 자존, 자강의 정신력과 자신심이 더욱 굳게 자리잡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혁명앞에, 이 나라와 미래앞에 무한히 충직하시고 인민의 존엄높고 부럼없는 삶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원수님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일편단심 높이 받들려는것은 조선의 한결같은 민심이고 억척의 신념이라고 하면서 그는 반만년력사에 전무한 가장 존엄높고 강성하는 시대를 펼치시고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을 즐기찬 발전으로 인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리였다.

그는 당 제9차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이 밝혀준 전면적발전의 다섯가지 시대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부닥치는 도전과 시련을 맞받아 원대한 리상에로 멈춤없이 나아가는 결정적담보가 있다고 말하였다.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앞으로 5년간의 투쟁계획을 년차별로 구체적으로 명확히 수립하고 대중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발동하기 위한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올해 투쟁에서부터 반드시 무조건적인 성공을 안아오며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전 과정을 3대혁명으로 일관시키기 위한 당적지도를 심화시켜 어디

서나 양양된 투쟁기세가 끊임없이 고조되게 하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당의 핵심이며 대오의 기수들인 일군들이 높은 지휘능력과 완벽한 집행결과로써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검증받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지도방법, 지도방식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부단한 혁신과 새로운 창조의 견인기적역할을 훌륭히 감당수행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수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결정집행의 훌륭한 경험과 본보기적인 성과들을 창조하며 전국의 앞장에 설 때 온 나라에 비약과 혁신의 기세가 더욱 고조되게 된다고 하면서 그는 모두다 애국의 열정과 투지를 배가하며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 결정의 빛나는 관철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튼성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국방성 부상 김영군동지,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조철준동지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군대, 이 성스러운 부름은 조선인민군의 제일가는 명함이고 백전백승의 근본원천이며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가 커질수록 충성과 위훈의 보무를 더 크게, 더 힘차게 재촉하는것은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이고 본태이라고 하면서 당대회의 기본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거창한 새 변혁의 시대를 개척해나가는 영예로운 투쟁에서 인민군대가 전위적역할을 다해나갈 철석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의 령도를 따르는 한길에서 조선청년의 존엄과 명성을 계속 높이 떨쳐나가자는것이 새 5개년계획수행에 걸기해나선 온 나라 청년들의 한결같은 맹세이라고 하면서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청년전위답게 당에 절대충성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무한히 헌신함으로써 당대회가 가리킨

새로운 변혁투쟁의 선봉에서 힘차게 내달릴 결의를 굳게 다짐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조선로동당 만세》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군중시위가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한 참가자들의 비등된 열의와 격양된 투쟁의지를 담은 우렁찬 구호들이 수도의 하늘가에 힘있게 울려 퍼지는 속에 당마크를 형상한 가장물대렬을 선두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위와 영웅성을 만방에 과시하자!》, 《당중앙따라 천만리》, 《일심단결》 등의 프랑카드와 표어들을 든 시위대렬들이 광장을 누벼나갔다.

시위군중들은 특출한 정치실력과 비범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주체혁명의 강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며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의 흠모심을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에 담아 터쳐올리었다.

성스러운 당기와 국기를 거폭으로 펼치고 힘차게 전진하는 대오마다에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끝없이 번영하는 천하제일의 강국, 인민의 리상향으로 빛내여갈 총천한 기상이 차넘치었다.

어머니당을 칭송하는 전인민적찬가들과 시대의 진군가들이 울려 퍼지는 광장은 우리의 사상, 우리 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백배하며 당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계획의 목표수행에 매진분투하려는 드높은 열정으로 세차게 뚫어번지었다.

평양시군민련 환대회 및 군중시위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펼친 휘황한 진로따라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불굴의 정신력과 애국적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갈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의 양양된 열의와 전진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 전국의 선거자들 최고인민회의 제 15기 대의원선거에 참가

각지에서 최고인민회의 제 15기 대의원선거가 진행되었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당 제 9 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전망목표 실현을 위한 장엄한 투쟁의 려정에서 진행되는 이번 선거에 삶의 터전이며 행복의 보금자리인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반석같이 다져갈 일념을 안고 참가하였다.

해방의 첫 기슭에서부터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조국에 대한 사랑과 투쟁으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한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인 전쟁로병들을 비롯한 혁명선배들이 선거에 참가하였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오늘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애국적헌신성을 높여 발휘하고있는 대의원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 우리의 정권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고 자신들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굴지의 대야금기지들, 평남의 탄전들과 대동력기지



들을 비롯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자기들의 손으로 인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쳤다.

강서구역 청산농장, 재령군 삼지강농장의 농장원들을 비롯한 온 나라의 농업근로자들은 전세대 농민들의 넋을 이어 전야마다에 애국의 땀과 열정을 바쳐갈 결심을 표명하였다.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 인민적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려는 혁명적열의가 선거에 참가한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육아원, 옥류아동병원 등 교육, 보건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도 분출되었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 567 호구 제 37 호분구선거위원회 서기장 전영숙동지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 나라 선거제도의 우월성과 민주주의적성격이 뚜렷이 과시되고있다고 말하였다.

대의원후보자로 선출된 황해북도체신관리국 국장 량일동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용광로 1 직장 로장 김주성동지는 군중의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자각하고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주권의 강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나갈 맹세를 다짐하였다. (끝)

##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진정과 축하속에 새별거리에서 새집들이 시작



우리 당의 숭고한 사랑과 어머니조국의 뜨거운 념원에 받들려 수도의 새 주소로 새겨진 평양의 자랑 새별거리에서 새집들이가 시작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화성지구의 명당자리에 참전영웅들에 대한 영원한 존경과 경의심의 응결체로 훌륭히 일떠선 새 거리의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유가족들에게 살림집리용허가증도 친히 안겨주시며 크나큰 영광을 베풀어주시고 그들모두가 하루빨리 복된 생활을 누리도록 은정 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귀중한 생명을 서슴없이 바쳐 어머니조국의 강대함과 불멸의 명성을 빛내인 해외군사작전참전영웅들과 그 유가족들을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값

높이 내세워준 위대한 당중앙의 열화의 사랑과 정이 넘쳐흐르는 새별거리는 또다시 감격과 환희의 열파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위대한 아버지의 은정속에 수도의 현대적인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펴게 된 유가족들이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부대 지휘관들과 평양시안의 일군들, 군민건설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새 거리로 들어섰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박태성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현지에서 유가족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새집에 입사하

는 유가족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고 새 집들이경사를 열렬히 축하해주면서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수호한 참전영웅들에게 진할줄 모르는 애국의 자양이 되고 불사신의 힘과 용맹을 백배해준 유가족들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며 사회주의만복을 제일먼저 안겨주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은정을 뜨겁게 전해주었다.

그들은 참전군인들의 부모들과 처자들의 운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성심을 다해 보살피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마땅한 본분이고 련사들에 대한 온 나라 인민들의 도덕의리심의 표현으로 된다고 하면서 유가족들이 부흥과 번영의 희열을 선참으로 체감하며 긍지스럽고 행복한 삶을 누려가도록 최선을 다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유가족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여온 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온 거리가 흥성이는 속에 영웅들에게 드리는 인민들의 경의심이 깃들어있는 새집들에서 어머니당의 은정에 목메여 터치는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뜨겁게 울리였다.

공화국2중영웅인 김동춘렬사의 안해 리향란은 새집을 찾아주신 아버지원수님께서 인사말조차 변변히 울리지 못한 자기에게 따듯한 축복과 격려도 안겨주시고 좋은 집을 받아안고 남편생각이 더욱 간절해질 속마음도 다정히 헤아려주시던 그날의 감격을 이야기하며 눈굽을 적시였다.

자애로운 아버지의 육친의 정이 어린 결혼상을 받아안고 가정을 이룬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련사의 맏아들과 며느리는 날마다 크나큰 행복과 영광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새별동 42반 3층 3호에 입사한 현인철, 정영옥부부는 영웅의 부모라고 누구나 존경하며 떠받들어주고 친혈육이 되어 성심을 다해 보살피주는 고마운 마음들을 매일, 매 시각 뜨겁게 받아안으며 특전특혜를 누리고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조국, 원수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신 사회주의대가정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북받친다고 진정을 터치였다.

끝없이 부흥하는 조국의 기상이 약동하는 수도의 번화가에서 온 세상이 부러워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고 하면서 정통진렬사의 어머니 안승희는 떠나간 아들의 마음까지 합쳐 귀중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문진성영웅의 안해 리지해는 만사람의 축복속에 새집에 입사하고보니 보답의 일념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면서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지켜 아낌없이 생을 바친 남편의 넋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 모습앞에 언제나 떳떳하기 위해 자식의 옳바르고 대바른 성장에 고임돌이 되어 충성과 애국의 가풍을 곳곳이 이어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빛나는 별로 영생하는 영웅들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갈 유가족들의 애국충심의 맹세가 불밝은 집집의 창가마다에서 끝없이 울려나왔다.

숭고한 사랑과 의리의 대경륜을 펼쳐가는 위대한 당중앙의 은혜로운 손길에 떠받들려 솟아난 새별거리는 영웅들의 넋과 숨결이 살아높뛰는 영예의 거리로, 그들이 바라던 번영의 꿈과 리상, 사회주의만복이 현실로 펼쳐지는 행복의 보금자리로 세세년년 빛을 뿌릴것이다.

## 식수절을 맞으며 각지에서 나무심기 진행

사랑하는 조국강산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후손만대에 물려줄 귀중한 재부로 더욱 훌륭하게 가꾸어가려는 우리 인민의 강렬한 지향과 애국의 열망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세 차게 분출되고있다.

당 제9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전면적릉성의 새로운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전인민적총진군이 과감히 전개되고있는 속에 식수절을 맞으며 각지에서 나무심기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무심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며 자기 단위, 자기 고향마을을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여야 합니다.》

식수사업은 우리 국가의 부흥발전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라는 관점을 지니고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무심기에 깨끗한 량심과 성실한 노력을 바치였다.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검열위원회, 농업위원회, 국토환경보호성, 경공업성, 룡해운성, 정보산업성, 수산성, 상업성, 조선혁명박물관 등의 일군들은 당창건사적관, 당창건기념탑과 중앙식물원주변을 비롯한 시안의 여러곳에 나무들을 심었다.

평양시의 구역,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갈 애국의 마음을 담아 거리와 마을, 공원들과 주변산들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정성껏 심었다.

만경대구역, 은정구역, 강동군에서 구덩이파기, 부식토갈기 등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면서 나무들의 생육에 좋은 조건을 지어주었다.

자기 고향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려는 열렬한 향토애, 조국애가 식수절과 더불어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높



이 발휘되었다.

평안남도, 황해남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자기 고향에 깃들어있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열의 안고 혁명사적지, 혁명전적지들과 인민군렬사묘주변의 식수사업에 지성을 바치였다.

당이 제시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 남포시의 근로자들과 녀맹원들은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토양조건, 해비침조건, 기후조건에 맞게 나무심기를 과학적으로 하면서 경제림조성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황해북도, 함경북도, 자강도 등의 주민들은 일터와 마을을 보다 문명하게 꾸리는데서 수림화, 원림화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사름률을 높이는데 힘을 넣으면서 각이한 수종의 나무들로 지역과 단위들의 풍치를 한껏 돋구었다.

양묘장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를 실속있게 내밀고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품종과 용도별로 나무모들을 충분히 확보한 강원도, 개성시에서도 력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나무심기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였다.

열렬한 향토애, 조국애를 지니고 평안북도, 함경북도의 녀맹원들도 나무들의 사름률을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공정별작업들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 전국의 시, 군책임일군들 삼광축산농장을 참관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밝혀준 투쟁방략을 받아안고 사회주의전면적건설의 또 한단계의 질적비약을 위한 새로운 려정의 출발선에 나선 전국의 시, 군당책임비서들과 인민위원장들이 2월 28일 현대적인 축산기지로 전변된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삼광축산농장을 참관하였다.

나라의 모든 농촌을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으며 부유하고 문명한 고장으로 전변시키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삼광리의 천지개벽은 우리식 농촌문명의 새로운 경지, 축산업의 발전방향을 선명히 직관해주고있다.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안고 농장에 들어선 시, 군책임일군들은 새시대 농촌건설과 축산업발전의 본보기로 훌륭히 일떠선 리상적인 문화농촌의 전경을 경탄속에 부감하였다.

당이 제시한 축산현대화의 제반 요구가 생산과 경영활동의 전과정에 구현되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참관자들은 제1분장과 시설모재배장, 젖제품생산장 등 농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참관자들은 축산업발전의 모든 요소들이 완벽하게 구현된 생산시설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지역의 특성과 조건에 맞게 축산기지들을 새로 꾸리고 기존시설들의 개건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며 축산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깊이있게 터득하였다.

풀먹는집짐승기르기와 젖생산에서 계절의

영향으로 인한 제한성을 극복할수 있는 육내사육을 비롯한 선진적인 방법이 도입되고 제품생산공정이 자동화된 현대적이며 문명한 생산환경에서 일하고있는 생산자, 기술자들의야기도 들으면서 그들은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실감하였다.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병원, 문화회관, 편의봉사건물을 비롯한 공공시설들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산골마을의 새모습을 펼친 삼광리의 아름다운 경관은 참관자들에게 우리식 농촌건설의 새로운 기준과 목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을 주었다.

참관을 통하여 시, 군의 책임일군들은 과학적이고 혁신적이며 전망적인 안목과 계획을 가지고 해당 지역의 건설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갈 때 이 땅에 펼쳐진 지방발전의 새시대가 명실공히 지방인민들의 복리증진과 국가의 전면적부흥에 이어질수 있음을 절감하였다.

전국의 시, 군당책임비서들과 인민위원장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지방의 발전을 더 높은 단계에로 힘있게 견인해나갈 새로운 결심과 의지가 다들며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책무를 다할 혁명적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 생물분해성 종이에 의한 지면피복재배방법

문덕군 어룡농장에서는 지난해 생물분해성 종이에 의한 지면피복재배방법으로 많은 알곡을 증수하였다

최근년간 적지 않은 농업생산단위들이 이 방법을 받아들여 많은 로력과 비료, 농약을 절약하면서도 알곡생산에서 좋은 결실을 보았다.

특히 문덕군 어룡농장에서는 지난해 농업과학원의 과학자들이 새롭게 개발한 농업과학기술제품인 토양피복용생물분해성 종이에 의한 지면피복재배방법으로 종전보다 정보당 1t의 알곡을 증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과학원에서 개발한 토양피복용생물분해성 종이의 생산은 낱알짚이나 갈짚을 원료로 하기때문에 그 원천이 풍부하다. 따라서 시, 군들에 있는 종이공장의 생산설비들을 그대로 리용하고 도포설비만 구비하면 된다.

도포는 종이를 피막제에 담그었다가 꺼내어 건조시켜 피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 하는데 종이의 물흡수성을 낮출수 있는 이 피막제도 국산화하였다.

생물분해성종이 1t이면 3정보의 면적을 피복할수 있는데 여기에 드는 원가는 비닐박막을 생산하거나 확보하는데 드는 원가에 비해 훨씬 적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비닐박막은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그런것으로 하여 비닐박막으로 지면을 피복하고 곡식이나 남새를 키우는 경우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더우기 7월과 8월에 장마가 질 때에도 비닐박막이 포전을 덮고있으면 토양의 물기함량이 높아지고 그로 하여 농작물에 해를 주는 뿌리썩음병과 같은 병들이 발생할수 있는데 이것은 수확고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자면 장마철전에 비



닐박막을 벗겨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품이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생물분해성종이는 일단 사용을 시작해서 60~75일정도 지나면 토양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기때문에 이런 작업조직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김매기도 필요없다. 이 종이를 사용하는 기간에는 싹터나오던 잡초들이 피복종이에 눌리워 제대로 자라지 못하기때문이다.

그러니 씨뿌리는 시기에 유기질거름과 같은 밑비료를 충분히 깔아주면 김매기와 후치질을 하지 않아도 좋고 조절비료를 따로 주지 않아도 되므로 많은 로력과 비료, 농약을 절약할수 있어 실리적이다.

비닐박막으로 지면피복을 하면 처음 몇년간은 정보당수확고가 오르지만 해가 지나감에 따라 점차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것은 비닐박막을 벗겨주는 과정에 일정한 량의 수지오물이 토양속에 남아있게 되는데 이것이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기때문이다.

심각하게는 수지오물들이 토양을 오염시키는 요소로 되는데 이렇게 오염된 토양을 환원복구하자면 많은 품이 들게 된다. 그러나 생물분해성종이의 분해산물은 토양오염을 일으키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유기질원천과 토양개량제로 되기때문에 더욱 좋다.

## 온포근로자휴양소 개업, 입소식 진행

인민의 문명과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것을 다해가는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국가의 온천문화를 대표할수 있는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온포근로자휴양소가 개업하였다.

풍치수려한 명당자리에 온천치료 및 보양시설들, 종합적인 봉사기지들이 자리잡은 휴양소의 곳곳에서 인민의 웃음과 랑만이 한껏 차넘치고있다.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시책의 혜택속에 윤택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도록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받들어 휴양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준공후 운영 및 봉사준비에 힘을 넣었다.

첫기 휴양생들을 축하하는 입소식이 25일에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일군들, 금속, 화학, 전력, 석탄공업부문을 비롯한 중요생산부문과

농업부문의 로력혁신자들, 휴양소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입소식에서 발언자는 종합적인 문화휴식기지, 치료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명소를 찾은 휴양생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이곳에서 휴양생들이 건강과 활력을 되찾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인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최우선시하는 어머니당의 열화같은 진정이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성심을 다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날 입소식을 축하하여 함경북도예술선전대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산간지역 고유의 멋과 특색이 잘 살아나면서도 문화휴식과 치료봉사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시설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진 휴양각과 온천장 등을 경탄속에 돌아보면서 휴양생들은 날로 꽃피어나는 우리식 온천문화의 새 경지를 체감하였다.



## 연길시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중심, 40년간 민족문화 전승에 앞장서



연길시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중심은 1981년 설립 이후 40여년동안 조선족 전통 민속 예술을 발굴하고 정리하며 전승과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지난 40여년간 중심은 노래와 춤, 기악 공연, 경·희극 등 2,400여편의 작품을 창작하고 7,000여회에 걸친 공연을 선보였으며 주급, 성급, 국가급 상을 600여차례 수상했다.

또한 전국 각지와 20여개국을 오가며 일본 《실크로드 예술절》, 향향 《제 14회 아시아 예술절》 등 국제 무대에 올라 《장고춤》과 《바다의 노래》로 금상을, 해금 독주 《도라지 타령》으로 은상을 수상했다. 독

무 《심현》은 국가 최고상인 《문화 신작품상》(文华新节目奖)을 받으며 조선족 문화의 예술적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렸다.

중심은 새로운 문화 브랜드 개발에도 힘써왔다. 2007년에 선보인 대형 민속풍경시화(诗画) 《사계절의 노래》는 1,800여회 공연되어 41만여명의 관객을 맞이하며 연길 판

광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부터 9회 편속 개최된 《무형문화유산의 소리》 음악회는 국가급, 성급 무형문화유산 전승인들의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는 무대가 되었으며 2024년에 공연된 창작 뮤지컬 《꿈·춘향》은 고전 이야기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은 중심의 중요한 사명이다. 조선족 해금 예술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고 농악 장단 등은 성급과 주급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 되어있다.

중심은 2018년에 《조선족 전통음악 전습소》를 설립하고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위한 전문 플랫폼을 마련했다. 2014년부터는 《무형문화유산을 학교로, 사회구역으로 진입》하는 행사를 통해 소학교에 악기를 기증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1,40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문화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문화혜민 리념을 견지하며 2009년부터 연변주의 농촌지역을 찾아 총 650여회의 하향공연을 펼쳐 9만여명의 촌민들에게 문화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길림성인민정부로부터 《농민과 기층문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는 선진집체, 《선진기층문예원단》 등 칭호를 수여받았다. /길림신문

## 심양시조선족녀성협회 3.8 국제부녀절 경축행사 성황리에



3월 8일, 심양시조선족녀성협회 《3.8》 국제부녀절 경축 총화표창대회 및 련환야회가 심양화부호텔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심양시조선족문화예술관,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회장단, 료녕성조선족문학회, 심양시조선족련의회, 심양시조선족기업가협회, 심양시조선족로인협회, 심조 1 중, 심양시화평

구서탑조선족소학교 등 여러 기관, 학교, 민간단체 대표들이 심양시조선족여성협회 회원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리경자 심양시조선족여성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3.8>국제부녀절 행사의 주제는 <꽃처럼 피어나 스스로 빛을 내자>이다. 조선족 여성들이 아름다움과 지혜, 자신감, 매력을 한껏 선보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와 함께 협회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며 전체 회원들에게 진심어린 부녀절 축하인사를 전했다.

또한 협회를 항상 지지하고 관심해준 여러 기관, 민간단체 대표들과 기업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해 지난해 협회 브랜드행사 기획에 참여한 부회장들이 총화를 했다. 김화선 부회장은 어머니날 행사, 최수향 부회장은 독서회 및 서향원 운영, 장매 체육부 부장은 민속운동회와 배구팀 훈련, 김영순 부회장은 시랑송대회 및 랑송반, 김향숙 부회장은 애심봉사활동, 박명옥 부회장은 재무상황을 총화했다.

총화에서는 협회가 조선족 여성의 동반성장과 자아가치 실현, 가정화합과 조화로운 사회 구축, 민족문화 계승발전에 헌신해온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표성룡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회장단 집행회장은 축사에서 여성협회의 다양한 브랜드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조선족 여성들의 발전을 응원하고 여성간 교류와 우의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지지를 보냈다.



심양시조선족련의회 길경갑 회장은 축사에서 리경자 회장을 필두로 한 지도부가 회원들을 단합해 우리 민족 우수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말 우리글 전승과 후대양성사업에서 거둔 뛰어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협회 회원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선두로 활약하고, 가정에서는 어머니·안해로서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을 칭찬하며 여성들의 명절을 축하했다.

표창식에서는 2025년도 협회 발전에 기여한 상황에 따라 우수 부회장과 부장, 회원들에게 방화상(芳华奖), 장미상(玫瑰奖), 란화상(兰花奖), 공헌상, 우수 회원상 등 총 5개 종류의 상을 수여했다.

특히 김영순 부회장은 랑송반 운영과 협회 위챗공공계정 《탑 너머 시》 관리 및 혁신적인 《우리말 자랑 시랑송대회》 기획으로 랑송문화를 꽃피워 심양지역을 홍보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협회 위상을 높이고 민족문화 전승에도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방화상을 수상했다.

주최측에서는 또 협회를 물심량면으로 관심해주고 지원해준 박석호, 구대완, 길경갑, 표성룡, 박해평, 최련자, 김창영, 라명원, 김명희, 한명자 등 기관, 학교, 민간단체 대표와 기업인, 문학·예술인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공식행사후 진행된 련환야회에서는 협회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다양한 무대가 펼쳐져 현장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료녕일보

##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4기 제 4차회의의 진행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4기 제 4차회의가 5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가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 대표들과 함께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강이 정부사업보고를 하였다.

그는 2025년은 매우 평범하지 않은 한해였다고 하면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전국의 여러 민족 인민들을 이끌어 난관을 이겨내고 높은 질적발전을 추동하였으며 경제 및 사회발전목표와 임무를 순조롭게 수행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지난해에 제 14차 5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되고 중국식현대화가 새롭고도 믿음직한 보폭을 내짚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정부앞에 나서는 주요과업들을 제기하였으며 정부의 자체건설강화에 대하여서와 민족, 종교, 교포사업, 국방 및 군대의 현대화건설, 홍콩, 마카오의 발전과 량안관계 그리고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회의에서는 정부사업보고에 관한 결의,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제 15차 5개년계획요강, 생태환경법전, 민족단결 및 진보촉진법, 국가발전계획법, 2025년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집행정형과 2026년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관한 결의, 2025년 중앙 및 지방예산집행정형과 2026년 중앙 및 지방예산에 관한 결의 등이 채택되었으며 2026년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과 2026년 중앙예산이 비준되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조락제가 폐막연설을 하였다.

중앙과 국가기관의 관계부문, 중국인민해방군의 관련단위, 인민무장경찰부대, 각 사회단체의 해당 책임일군들이 개막회의와 폐막회의를 방청하였다. /인민넷-조문판

## 3월부터 이런 새 규정들 우리 생활에 영향 미쳐!

류통기한이 지난 식품, 라벨이 없는 포장식품 등은 라이브방송을 통해 판매할 수 없고 관광불만처리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했으며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정보를 분류했다... 2026년 3월부터 이런 새로운 규정들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3월 1일부터 실시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규칙과 연계하고 국제경제무역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고 국경간 서비스무역 부정리스트관리제도, 대외무역의 새로운 업종형태와 새로운 모델 발전 지원과 촉진, 디지털무역 발전 지원 및 장려 등을 법률제도로 격상시켰다.

###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3월 1일부터 실시

대외법치건설을 강화하고 우리 나라 중재의 공신력과 국제경쟁력을 높인다. 그중 중재활동은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중재활동은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행되며 오프라인중재활동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 국가는 중재기관이 해외중재기관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중재규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역조례》 3월 15일부터 실시

자연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자연보호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 시스템 복원, 종합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모니터링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을 강화하여 생태위험을 적시에 평가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다.

자연보호구역 핵심보호구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위적인 활동을 금지하고 일반통제구역에서는 인위적인 활동을 엄격히 제한한다.

자연보호구역 보호상황에 대한 감독검사 등을 강화한다.

### 《라이브커머스경영자 식품안전 주체적 책임 감독관리규정》 3월 20일부터 실시

소비자불만이 큰 문제에 비추어 라이브커머스경영자 식품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을 진행했다.

그중에는 비식품원료 생산, 유해물질첨가 식품; 병원성 미생물, 중금속기준치 초과 식품; 유통기한이 지나고 부패, 변질, 곰팡이가 낀 식품; 병사 및 독사 또는 검역불합격 가축가금수산물 고기 및 그 제품, 라벨이 없는 포장식품, 국가에서 생산경영을 금지한 식품 등이 포함된다.

### 《관광신고처리방법》 3월 15일부터 실시

관광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관광신고처리기구에 신고할 수 있다. 관광경영자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경영자의 책임으로 인해 관광객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을 리행할 수 없거나 완전히 리행할 수 없는 경우, 관광객과 관광경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타 관광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치는 경우가 포함된다.

###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정보 분류방법》 3월 1일부터 실시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터넷정보의 4가지 유형과 구체적인 표현형식을 명확히 했고 미성년자 이미지의 부적절한 사용 등 최근 몇년간 두드러진 문제를 관리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알고리즘 추천, 생성형 인공지능 등 신기술, 새로운 응용, 새로운 업종형태가 초래할 수 있는 내용위험에 대한 예방요구를 제시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엄밀하며 시대와 병진하도록 확보했다.

/인민넷-조문판

## 로인 건강 관련 7가지 위생업계 기준 발표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3월 18일 《로인 인지장애 예방 개입 기술기준》 등 7가지 추천성 위생업계 기준을 발표했다. 관련 기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로인 건강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시행되는 이 기준에는 인지장애 예방부터 기능상실 관리까지의 폭넓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발표된 《로인 인지장애 예방 개입 기술기준》에서는 인지장애 예방 봉사기구는 12개월마다 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간을 선택하여 인지장애 예방 봉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평가 결과와 대상자의 인지 상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봉사 대상을 조정하고 개인 맞춤형 봉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의료 양로 결합 건강관리 봉사기준》에서는 의료 양로 결합 건강관리 봉사를 제공하는 기구의 기본요구와 의료 양로 결합 건강관리봉사의 세부적인 항목을 명시하고 시설, 가정, 사회구역 3가지 봉사 환경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까지 포함시켰다.

《로인 기능상실 예방 봉사기준》에는 봉사내용에 로인 기능평가, 기능상실 예방 건강교육, 만성질환 및 위험요인 관리, 신체활동 지도, 영양 관리, 시력기능 보호, 청력기능 보호, 근육골격 질환 예방통제, 허약예방통제, 낙상 방지 등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다. /인민넷-조문판



## 跨境列车畅行无阻，中朝合作再启新程

从中国铁路获悉，自2026年3月12日起，北京、丹东站至朝鲜平壤间的国际旅客列车将恢复开行，北京—平壤间国际旅客列车每周一三四五六开行，丹东—平壤间国际旅客列车每日开行，经丹东、新义州口岸进出境，车票均采用线下营销方式。中朝传统友谊与时代呼唤使得这趟国际列车重回常温运行，连接起中朝之间陆地边境人员跨境便利往来，更推动了中朝人文交流、经贸合作、地区和平，成为新时代彰显中朝民心相通、互利互惠的又一见证。（中国铁路）

开行中朝国际旅客列车是加快人文交流的人心工程、是深化经济互信的迫切需要、是优化周边环境的大局之举，是传统友谊的时代续写，是合作迈上企稳回升、再塑新局的有力印证，为开放发展的东北亚地区增添亮色。

人文互通润民心，往来交融增情谊。国际列车常态化运营，使得中朝两国民众从“隔江远眺”到“朝发夕至”，使民心相通更加有深度、有温度、有质感。从北京到平壤，全程不到25小时，从丹东到平壤，全程不到6小时，班次准点、网络密集，为走亲访友、踏寻红色足迹、跨国旅游观光、跨国交流学习提供方便、安全、快捷的跨境出行交通服务。自边境人员往来恢复以来，两国跨国民众文化艺术交流活动日渐活跃，缅怀先烈、参观游览、文化旅游、青年培养成为人员往来新主题、新风尚，人员的频繁往来将两国人民的友谊“串”得更近，将文化交流“串”得更更有活力，将民心相通“串”得更深、更紧、更密，让“跨国友谊超越时空、薪火相传”。



开往春天的列车。熊涛 摄

经贸联动强动能，互利共赢拓新局。车通，带来了人往，激活了经贸。海关数据显示，2025年中朝口岸贸易额达27.35亿美元、同比增长25.5%，贸易额趋热趋快，医疗、建材、民生等经贸合作持续扩大。跨境客列开通为商务出访、项目交流对接和企业考察互访提供了便利的陆路通道与平台，既节省下来回沟通成本又增加了对接落地时间。同时，客列开通激活了丹东口岸旅游、运输、物资等经济发展动能，将边关“通道经济”从单一的通道贸易向边关物理空间和边关经济转变，为激活发展、改善民生、服务振兴做出了双边贡献，为互利共赢发展之路赋动力、增活力。

环境共治筑屏障，协同共进向未来。列车运行平稳安全，得益于中朝双方密切配合、有效组织、戮力同心。中朝铁路部门加强设备整修、人员培训、过境联接，完善购票、边境检验程序，努力为两国人员安全、规范、便捷、舒适的跨境出行创造良好条件。当前国际局势复杂，国际列车恢复开行，不仅是交通上的务实合作，更成为助力两国边境稳定、增进民众互

通的有效措施，充分体现了中朝睦邻友好、携手努力、互利共赢的坚定决心，为东北亚地区营造安全稳定、包容开放、融合发展的良好氛围，注入强大正能量。

中朝国际旅客列车的开通，亦是历史的传承、再出发，亦是未来的起点、新征程，从民心相通到经济互联，从互利互惠到共建共享，中朝间这趟列车穿过鸭绿江，承载着两岸人民的美好生活期盼，也承载着未来中朝友好继续大步向前迈进的坚定步伐，我们坚信，人员往来越来越便利、合作舞台越来越广阔、往来交流越来越丰富，中朝睦邻友好必将根深叶茂、枝繁花盛，互利合作必将硕果累累、行稳致远，续写和平友好、携手并进的时代新篇章。

（来源：中国网 作者：梁艺菲 周超）

## 丹东与平壤间国际旅客列车正式开行

本文转自【新华社】；

北京时间3月12日10时整，开往朝鲜平壤的95次列车从中国丹东站驶出，丹东与平壤间国际旅客列车正式开行。这辆列车挂有5节客车车厢，预计在当地时间18时07分抵达平壤站。记者在丹东站国际联运候车室看到，列车时刻表、电子屏、服务台等均配有朝鲜语标识。一名朝鲜籍旅客告诉记者，11日了解到列车开行的消息后，她当天就到线下购买了车票。

这是3月12日拍摄的95次列车。新华社记者 潘昱龙 摄

丹东出入境边防检查站执勤三队队长宋平介绍，为确保开行首日口岸通关秩序顺畅，丹东边检站提前细化通关引导、证件查验、流程衔接等举措，将整列火车验放时长压缩至30分钟以内。目前，丹东与平壤间国际旅客列车每日双向对开。其中从平壤出发的51次列车在当地时间10时26分始发，预计于北京时间16时23分抵达丹东站。中国国家铁路集团有限公司国际部负责人介绍，中朝国际旅客列车既是服务跨境旅客的重要窗口，也是增进中朝友谊的流动纽带，将进一步促进中朝两国人员往来、经贸合作和人文交流。（记者张逸飞、武江民）

## 中国国航北京至平壤直飞客运航线复航

2026年3月30日10时40分，随着从北京首都国际机场起飞的国航CA121号航班平稳降落平壤顺安国际机场，中国国航时隔6年正式恢复北京至平壤直飞客运航线。王亚军大使率中国驻朝鲜使馆部分外交官，朝鲜民航总局对外事业局副局长田宇哲等在机场迎接首批乘客。



王大使欢迎首批乘坐复航航班抵朝乘客，并表示，此次国航航线复航是中朝航空运输合作的一项标志性事件，将架起两国进一步增进友好往来、民心相通的桥梁，为促进中朝人员流动、经贸合作与人文交流注入新动能。至此，中朝之间公路、铁路、航空已实现全面复通。下一步，中朝双方将进一步落实好两党两国最高领导人共识，推动两国人民更加密切交流，续写两国人民相知相伴、两国文化交流互鉴、两党两国友好合作的新篇章。

乘客代表对乘坐航线复航后的首趟航班来朝感到十分荣幸和高兴，并表示，航班全程飞行平稳舒适，北京直飞平壤复航首航体验十分完美！相信这条航线的复航将为中朝人员往来带来更多选择和便利，为促进中朝关系发展发挥积极作用。

中国国航北京至平壤直飞客运航线2008年首航，2020年受新冠疫情影响暂停运行。据了解，该航线每周一飞行一班。北京至平壤为CA121航班，北京时间08:05起飞，平壤时间11:00抵达；平壤至北京为CA122航班，平壤时间12:00起飞，北京时间12:55抵达。

## 이란, 《미국과 이스라엘은 참혹한 대가 치를 것》

2월 28일, 이란 외무부가 성명을 발표해 유엔이 조치를 취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 이란 군사행동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참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미국이 외교대화를 진행하는중에 이란 여러 도시의 다수 목표물과 국방 및 민간시설 여러 곳에 습격을 가했다. 이는 이란의 영토완정과 국가주권을 공공연히 침범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조국을 보위하고 적들의 침략에 맞설 때이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번 군사행동은 《유엔헌장》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란은 이에 반격할 권리가 있다. 이란 무장부대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동원하여 적들을 물리칠 것이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군사행동은 《지역과 글로벌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조》이며 유엔은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 이란 《군사침략》에 대응해야 한다.

성명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란은 외국의 침략에 굴복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단호하고 견결하게 반격할 것이며 침략자들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따른 참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 밖에 이란 외무장관 아락치가 이란은 반드시 미국과 이스라엘에 《마땅한 교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락치는 소셜미디어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를 지목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킨 군사행동은 《근거 없는 도발이자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며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이스라엘 우선주의로 바꾼 것은 결국 미국 최후주의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

## 이란 정부, 하메네이 순직 성명 발표

1일, 이란 정부가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순직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면서 《모든 역량과 결심으로 적들이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전국적으로 40일간의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공공기관은 7일간 업무를 정지한다고 선포했다.

성명은 《우리는 비할 데 없이 침통한 심정으로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순직했음을 선포한다. 천인공노할 이 만행은 반드시 엄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모든 역량과 결심으로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과 배후 조종자들이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이란인민은 일심단결하여 모든 난관을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

## 미국 50여개 도시 대 이란 전쟁 반대 시위 폭발

미국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50여개 도시의 민중들이 7일 시위집회를 열고 미국의 대 이란 무력사용을 규탄했으며 트럼프정부에 중동 군사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당일 수백명의 민중들이 뉴욕시 맨해튼 유니언광장에 모여 이란 국기를 높이 들고 《이란과의 전쟁을 중단하라.》, 《이란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 《현재 전세계의 최대 위협은 트럼프와 미국이다.》고 높이 웨쳤다.

뉴욕의 시위 참가자 마야는 신화통신 기자에게 《이는 비정적인 전쟁이다. 미국 정부는 이 전쟁에 매일 10억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는 생계부담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 돈은 미국인민에게 혜택을 주고 의료 보건의, 아동 보육, 대중교통 등을 개선하는 데 써야지 전쟁에 써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말했다.

뉴욕 시민 매기 모랄레스는 《이번 전쟁이 미국 국가와 인민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을 더욱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유사한 사례와 역사를 너무 많이 겪었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그 나라 국민들을 해쳤지만 결코 미국에 그 어떤 이익도 가져다준 적이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 상하원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뉴욕시 브롱크스 주민 안드레이 이스턴은 미국의 정치체제가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의 현 정치체제가 끊임없는 살륙과 류혈 충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당일 오후, 수백명의 시민이 로스앤젤레스 시청 앞에 모여 반전 집회를 열고 《이란에 대한 폭격은 범죄이다.》, 《중동문제에 개입하지 말라.》 등 구호를 웨쳤다. 여러 집회 참가자들은 기자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린 전쟁이 지역 평화를 파괴했으며 이란 인민에게 심각한 재앙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목소리를 내 이 불의의 전쟁을 함께 저지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볼티모어, 라스베이거스, 피츠버그 등 도시에서도 당일 반전시위가 일어났다. 민중들은 미국이 즉각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중단하고 중동지역이 전쟁의 참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한 후, 미국 민중들은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여러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延边日报

## 쿠바 국가주석, 《모든 침략자들은 불굴의 저항에 직면할 것》

쿠바 국가주석 디아스 카넬이 17일 《현재 쿠바는 준엄한 정세에 처해있지만 모든 침략자들은 쿠바인민의 불굴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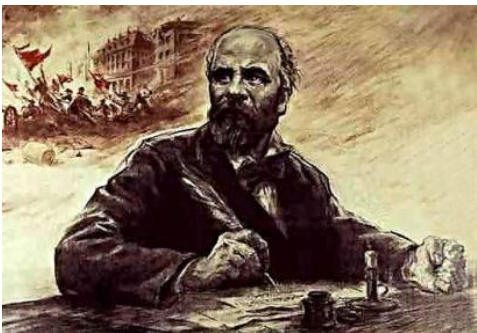
카넬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미국이 거의 매일 무력으로 쿠바 헌법질서를 뒤엎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있으며 쿠바의 취약한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제한을 리유로 비난하고 있으나 이 국면은 바로 지난 60여년간 미국이 지속적으로 쿠바를 억압하고 고립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이 공개적으로 쿠바를 통제하고 자원과

재산을 점유하며 심지어 쿠바의 경제를 전부 장악하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쿠바를 《질식》시켜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모든 쿠바인민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처벌식의 잔혹한 경제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올해초 베네수엘라에 대규모의 군사공격을 가한 뒤 쿠바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했으며 여기에는 새 라운드의 석유제한 조치 시행도 포함된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15일 《먼저 이란을 해결한 후 쿠바를 처리하겠다.》고 위협했었다. /延边日报

## 《인터날쇼날》의 창작가들

### 작가 에젠 뽀찌에



에젠 뽀찌에는 1816년 10월 4일 빠리의 한 포장공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림을 좋아하는 그는 한때 직공으로 일하면서 로조지도자로도 있었다. 그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 하는것은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남긴 사진을 보고도 짐작할수 있다. 옷저고리에는 단추들도 변변한것이 없고 조끼의 앞섶은 너무나 닳고 해져 보기조차 민망할 정도이다. 뽀찌에는 14살 때 벌써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자유 만세!》라는 시를 써서 사람들속에서 신동으로 불리웠다. 부패한 자본주의사회의 착취상을 폭로하고 노동자들을 낡은 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리일으키는 격조높은 시들중에는 《낡은 집을 부시라!》도 있다. 그는 1848년 2월혁명과 6월 폭동에 참가하였으며 제1국제당의 활동에도 적극 참가하였다. 그의 사상정신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나게 한것은 프랑스-프로씨아전쟁(1870-1871)이었다.

프로씨아군이 5개월동안 빠리를 봉쇄하자 대부르쥬아지를 대표하는 띠에르 정부는 1871년 2월 26일 침략자들에 대한 투항을 결정하였다. 그에 항거하여 빠리의 노동자, 수공업자들은 자체로 무장을 갖추고 진보적인 국민근위대와 합세하였다.

무산계급혁명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띠에르 정부는 빠리노동자들을 무장해제하고 국민근위대의 진출을 막기 위해 수도에 있던 국민근위대의 포들을 끌어내고 국민근위대중앙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다. 그러나 군대는 인민들에게 사격을 가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였다. 무장한 시민들과 군대는 정부기관들을 점거하고 시청우에 프로레타리아혁명의 붉은기를 꽂았으며 국민근위대중앙위원회를 위수로 쾰문을 선포하였다.

나라는 두 진영, 무장한 빠리의 혁명세력과 수도에서 서쪽으로 17km 떨어진 베르사이유(황제의 궁전이 있는 곳)의 부르쥬아반동세력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국민근위대군관이었던 뽀찌에는 1871년 4월 16일 쾰문보충선거시 빠리의 제11선거구에서 쾰문위원으로 선거되었다. 86명의 위원(그중 노동자 26명)으로 구성된 빠리쾰문은 력사상 세계최초의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이였다. 쾰문은 일련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시책들을 실시하였다. 당황망조한 베르사이유군대는 10여만의 대군으로 빠리를 공격하여 쾰문성원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학살하였다.

력사에서 《5월의 피의 주간》(1871. 5. 21-5. 28)이라고 불리우는 그때 베르사이유반동당국의 백색테로에 의해 3만여명이 학살되고 7만명이 체포구금되었으며 10만명이

피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국민근위대는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뻬르라쉴즈지방에서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웠다.

부르쥬아당국은 쾰문위원인 뻬찌에에게 결석판결로 사형선고를 내렸다. 72일간 존재 하였던 빠리쾰문은 시인 뻬찌에에게 죽어서도 잊지 못할 강한 충격을 주었다. 그는 피신해있는 기간 모진 상처로 고열에 허덕이면서도 빠리쾰문위업은 정당하며 전 세계에서 로동계급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열정을 담아 시들을 창작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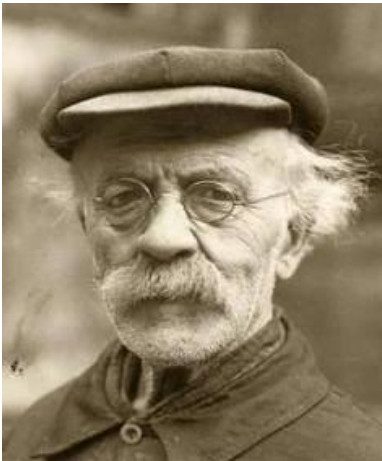
그의 전우들은 건강을 넘려하여 뻬찌에를 만류하였으나 그는 《나의 몸은 혁명에 바친 몸이요, 이 시들은 기어코 완성되어야 하오,》라고 말하며 손에서 펜을 놓지 않았다. 뻬찌에는 한자두자 신념과 확신, 의지와 기개가 나래치는 시어들을 골라갔다. 이렇게 되어 1871년 6월 국제로동계급의 단결의 송가《인터나쇼날》의 가사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 가사는 발표될수 없었다. 뻬찌에는 가사를 제 살붙이처럼 늘쌍 가슴에 품고 지냈다. 그는 프랑스를 떠나 영국에 가있다가 밀정들의 눈을 피해 1873년 미국으로 망명하여 그림제작공, 미술교원으로 로동운동에 참가하였다.

1876년 그는 서사시《미국로동자들이 프랑스로동자들에게 전하는 글》등을 썼다. 그 후 혁명군중의 압력에 못이겨 프랑스당국의 대사령이 내려지자 뻬찌에는 귀국하여 프랑스로동자당에 입당하였다. 뻬찌에는 가난속에서 1887년 11월 6일 한많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은 그해 11월 8일 빠리로동자들의 대시위로 번져졌다. 시위자들은 빠리쾰문시기 빠리정부청사에 날렸던 붉은기를 들고 거리에 떨쳐나섰다. 경찰들이 붉은기를 빼앗고 시위대오를 막아보려고 날뛰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굴하지 않았다.

혁명군중들은 그의 시신에 붉은기를 덮어 16년전 쾰문성원들이 마지막격투를 벌렸던 뻬르라쉴르의 공동묘지에 안치하였다. 이전 쾰문성원들이 애도사를 하였다.

레닌은 1913년 1월 3일 《쁘라우다》에 발표한 글에서《그는 한생을 가난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인간의 손으로는 쌓을수 없는 위대한 기념비를 세웠다. 그는 노래를 무기로 한 훌륭한 선전자의 한사람이었다,》고 썼다.

### 작곡가 삐에르 데쉴레



삐에르 데쉴레(1848-1932)는 벨지끄의 북부에 있는 겐뜨지방에서 태어났다. 그는 목재가공선반공이었다. 젊은 시절에 프랑스로 건너와 릴지방에서 《로동자들의 노래》라는 로동자합창단을 조직하였다. 살림이 가난하여 릴지방의 음악대학에는 가지 못하고 일하면서 2년제강습소에 다니었다.

프랑스-프로씨아전쟁에 참가한 그는 빠리로동자들의 투쟁에 진심으로 공감하였다. 그리하여 1871년 3월 1일 빠리로가 쾰문성원들과 합세하려 시도했으나 경찰당국에 저지당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887년 에젠 뻬찌에의 시집《혁명가요집》에서 가사《인터나쇼날》을 본 그는 모든 정력을 쏟아부어 곡을 달았다.

《인터날쇼날》은 원래 6절로 구성되어있었다. 그는 상례대로 가사에서 가장 중요한 1절, 2절, 6절을 택하여 3개 절로 된 노래를 지었다. 데쉴레는 가사를 3절로 함축하여 곡을 달면서 《이는 우리 마지막 판가리싸움이니---》라는 후렴을 두번 반복해주어 시상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가사가 나온지 17년이 되는 1888년 6월 프랑스의 릴지방에서 그가 조직한 사회주의리념소조성원들에 의하여 노래가 처음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다.

당국의 탄압으로 작곡가의 이름을 밝힐수 없었던 노래 《인터나쇼날》은 데쉴레가 활동하던 프랑스의 릴지방은 물론 그의 조국인 벨지끄, 나아가서는 서유럽나라들의 로동계급속에 급속히 파급되었다. 1896년 7월 프랑스사회로동당 제 14 차대회가 열렸을 때 도이쉴란트사회민주당 지도자 칼 리크프네이트를 비롯한 혁명가들은 기회주의자들이 프랑스부르쥬아혁명시기 류행된 가요를 부르며 대회를 파탄시키려고 시도하자 《인터나쇼날》 노래를 우렁차게 부르며 그것을 저지시켰다.

1900년 제 2 국제당대표대회가 빠리에서 열렸을 때 프랑스사회로동당 대표들은 《인터나쇼날》을 부르며 대회에 참가하였고 대회폐막식에서는 프랑스대표의 제의로 전체회의참가자들이 일제히 이 노래를 힘있게 불렀다. 1902년 그는 빠리교외의 썬테니로동자부락에서 로동자합창단을 조직하고 《인터나쇼날》을 기본으로 로동자들속에 노래보급을 하였다. 1910년 단마르크의 수도 쾰른하른에서 열린 국제당대표대회에서는 《인터나쇼날》의 노래를 정식 국제로동계급의 송가로 결정하였다. 《인터나쇼날》은 20세기에 들어서서 거의 모든 나라들에 나라가 돋힌듯 삼시에 퍼져 로동자들의 애창곡으로, 공산당, 로동당들의 당가로 되었다.

사회주의 10월혁명이 승리한 후 로씨야에서는 전로중앙집행위원회의 1918년 4월 18일 정령으로 빠리쑤문당시 빠리시청에 날렸던 붉은기를 쏘베트국가의 국기로, 붉은군대에 수여하는 군기로 제정하였으며 《인터나쇼날》을 국가로 제정하였다.

이렇게 되자 《인터나쇼날》의 작곡가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쏘베트로씨야에서는 물론 여러 나라에서도 제기되었다. 가사를 쓴 사람은 빠리쑤문창시자의 한사람이었으므로 명백하였지만 그때까지 지방의 한 작곡가가 곡을 단데다가 당국의 탄압으로 작곡가의 이름을 알릴수 없던 사정으로 그것을 밝힌다는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데쉴레는 자기의 저작권을 찾느라 여러해동안 많은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22년 9월 22일 프랑스재판소는 그의 저작권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였다. 그의 이름은 순간에 아득한 높이에 올라서게 되었다. 1928년 작곡가 데쉴레는 쏘련을 방문하였다. 국가의 곡을 지은 프랑스공산당원을 맞이하는 쏘련사람들의 환대는 두말할것없이 대단하였다.

그는 1932년 9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그의 시신은 생전에 늘 로동자합창단을 이끌던 빠리교외의 썬테니로동자부락의 공동묘지에 안치되었다. 쏘련에서 《인터나쇼날》은 쏘도전쟁시기인 1944년에 쏘련국가가 새로 제정되면서 쏘련공산당의 당가로 남아있게 되었다. 《인터나쇼날》은 오늘도 국제로동계급의 찬가로 울려퍼지고있다.

## 페르시아만



페르시아만은 인도양 서북부에 위치한 이란 고원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으며 서북-동남 방향으로 뻗어 있다. 이란 해안은 산악 지대로 가파른 해안선을 이루고 아라비아 반도의 해안은 주로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북쪽으로는 푸라트강 하구에서 시작하여 동남쪽으로 호르모즈 해협까지 이르며 총길이는 990km, 넓이는 56~338km이다. 평균 수심은 약 40m 메터, 최

대 깊이는 104m, 총면적은 24.1만 km<sup>2</sup> 이다.

연안국가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아랍추장국, 오만 등 8개국이다. 페르샤만 지역은 아열대 사막 기후에 속하며 연간 강수량이 100mm 미만이다. 고온과 고염 환경이 특수한 해양 생태계를 형성하여 진주, 조개류 및 어류 자원이 풍부하다.

페르샤만 지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 기지로 《세계 석유 보물창고》로 불린다. 이 지역의 석유 탐사 매장량은 약 910억 톤으로, 세계 총량의 64.5%를 차지하며, 천연가스는 33.4%를 차지한다. 최근 몇년간 석유 채굴 활동으로 인해 해양 오염이 발생했고 얕은 해역에서 석유기름 확산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페르샤만 지역의 석유 및 가스전은 해안대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총 1,841개의 석유, 가스전이 포함된다. 이 중 3.5억 톤 이상의 매장량을 가진 초대형 유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80% 이상의 유전이 자연 유출 유정이어서 채굴 비용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주요 석유층은 백악기의 산호초·모래 퇴적 환경에서 형성되었다.

페르샤만 지역은 오래동안 지정학적 분쟁의 중심에 있었고 역사상 여러 차례 군사 충돌이 일어났다. 기원 7-8세기는 아랍 제국의 내해였다. 15-16세기는 토이기인에 의해 통제되었다. 17세기 전반기에 영국, 네델란드 사이가 프랑스와 각축을 벌였다. 제1차세계대전 후 미국 석유회사는 페르샤만에 침입하여 영국과 석유를 쟁탈하였다. 페르샤만은 석유의 창고이지만 전란과 고난을 가져왔다. 외세의 침투와 쟁탈, 게다가 페르샤만 내부에서 각종 역사와 현실적 원인으로 인한 모순으로 페르샤만 정세를 장기간 불안하게 하고 여러 차례 전쟁을 일으켜 현지 인민들에게 재난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전체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페르샤만을 세계 전략의 중요한 일환으로 삼아 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침투해 왔다. 이라크를 부추겨 이란-이라크 전쟁을 하게하고 다시 이라크를 침범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은 페르샤만 지역의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에 미군 기지를 세웠다. 이라크와 이란이 1980년부터 1988년까지 8년간 진행한 이란-이라크전쟁은 중동현대사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지속시간이 가장 길며 손실이 가장 막심한 전쟁의 하나로서 최종적으로 량패하고 변계가 전쟁전의 상태를 회복하는것으로 결속되었다. 페르샤만은 이란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일찍 이란 내호에 속했던 페르샤만은 이란이 해양에 진입하고 세계 각국과의 교류를 실현하는 전략적 통로이자 세계 각국이 이란 고원에 진입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내륙에 깊이 들어가는 교통 요충지이다. 페르샤만은 이란의 석유 및 가스 자원의 저장, 생산 및 수출의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호르모즈 해협이라는 전략적 통로는 이란 국방 안전의 최우선 장벽이다. 호르모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무역 운송의 20%를 통제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거센 섬 등 천연 장벽이 분포되어 있다. 이란은 군사배치를 통해 해협 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운수협약에 참여하여 경제협력을 확대하였다.

1979년, 이란이슬람혁명후 미국과 이란은 엄중한 적대상태에 처해있었다. 미국의 추동하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선후로 이란에 대해 제재를 실시한 1737호 결의와 1747호결의를 통과시켰다. 미국은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여러 차례 비난하며 이란의 핵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이란을 압박했다. 2026년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은 련합으로 이란에 대해 군사타격을 발동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폭격으로 사망하였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등에 있는 미군의 군사기지와 이스라엘의 군사, 안보 중심지를 미싸일과 무인기로 타격했다. 전쟁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 명 리 답 부

명리답부는 고구려 신대왕(165~179)때의 국상이었는데 군사전략가로도 역사에 전해 오고있다.

### 뛰어난 충성과 전법

172년 11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한낮이 되여올무렵 고구려 수도에  
는 변경에서 급보가 날아왔다.

급보는 한나라의 대부대가 고구려국경  
을 넘어 국내깊이로 공격해온다는것이  
였다.

신대왕은 여러 관리들을 곧 궁궐로 불  
러들이었다.

국상 명리답부를 비롯한 여러 관리들이  
궁궐에 들어오자 왕은 그들에게 물었다.

《한나라가 대병력으로 불의에 침입해  
오고있다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관리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한동안 대답  
을 못하였다.

한나라가 대병력으로 침입해온다는것이  
뜻밖의 소식이기도 하였거니와 그를 막을  
만한 군사들의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였던  
것이다.

적들에 대한 분격으로 얼굴이 붉어져  
씨근거리던 관리들은 주먹을 쥐고 이를  
갈며 서로 바라보다가 흥분을 참지 못하  
고 왕에게 한마디씩 제의하였다.

《한나라군사들이 이렇게 불의로 우리  
나라에 쳐들어온것은 저들의 군사가 많은  
것을 믿고 우리를 업신여기고있기때문이  
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군사가 적고 싸  
움 준비가 안되었다고 주저하며 즉시 대

응해나서지 않는다면 적들은 우리를 더  
업신여기고 더욱 날칠것이니 있는 군사로  
즉시 출전하여 맞받아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한 관리가 주먹을 부르쥐고 제  
의하자 곁에 있던 한 관리가 호응해나섰다.

《그렇소이다. 적들은 많고 우리 군사  
는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는 산이  
험하고 길이 좁으니 지형을 잘 리용하여  
싸운다면 두려울것이 없다고 보나이다.》

그러자 이를 갈며있던 여러 신하들이  
머리를 끄덕이며 모두 긍정하였다.

《옳은 제의라고 보나이다.》

《그러니 맞받아 출전하여 싸우자는데  
의견들은 없는고?》

왕이 이렇게 묻자 모든 관리들은 의견  
이 없다는듯 서로 바라보며 잠잠했다. 이  
때 국상 명리답부가 왕의 앞으로 한걸음  
나섰다.

《소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소이다.》

모든 관리들은 의아해하며 명리답부를  
바라보았다.

《어째서?---》 왕도 의아해하며 물었다.

《병법에 이르기를 적과 싸워 이기자면  
우선 자신을 알고 적을 알아야 한다고 하  
였나이다. 우의 의견들은 자신을 알고 취  
하는 대책으로는 되오나 적을 알고 취하  
는 대책으로는 되지 못하는줄로 생각하나

이다.》

《적을 알고 취하는 대책이 아니라구 ---?》

《그렇소이다. 적들을 안다는것은 적들의 약점을 안다는 말이오니 지금 적들의 약점은 우리 나라를 깊이 침입하자면 천 리길이나되어 지고오는 군량으로 그 기간에 다 대일수 없고 가져오자면 거리가 멀어 애로가 아닐수 없는것이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약점을 리용하여 들판을 비워 놓고 수도성까지 끌어들이고 성을 며칠만 지켜내면 놈들은 굶주려 더 싸우지 못하게 될것이니 그때 강한 군사로 공격하면 적들은 반항을 못하고 물러갈것입니다. 그 기회를 타서 험한 산과 좁은 길을 리용하여 적을 몰아치면 힘들지 않게 싸워 이길수 있을것이라 보나이다.》

이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왕은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다.

《국상의 의견에 다른 생각들은 없는가?》 명리답부의 의견을 되새겨보고난 여러 관리들이 모두 좋은 의견이라고 지지해나섰다. 그리하여 왕도 명리답부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왕은 곧 전국에 령을 내려 놈들이 지나올 벌판들과 마을에 한알의 쌀과 한알의 소금도 얻지 못하도록 비우게 해놓고 놈들이 수도성까지 오는 기간을 리용하여 위나암성둘레에 해자도 깊이 파고 성을

수축하면서 만단의 싸움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얼마뒤에 적들이 위나암성까지 공격하여 왔으나 완강히 방어하는 성을 깨칠수 없어 여러날성주변을 포위하고 맴돌다가 군량이 떨어져 굶주리고 지쳐나기 시작하여 싸움을 포기하고 돌아가려 하였다.

이때 명리답부가 수천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좌원벌에서 족치니 한나라 군사들은 반항도 못해보고 녹아났다.

그런속에서 살아 도망치려 하던놈들도 사방에서 일떠선 고구려 군사들과 인민들이 험한 산세와 좁은 길목을 리용하여 족쳐대니 군사 한명은커녕 말 한마리도 살아 제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한나라의 대병력을 적은 군사로 아군의 작은 손실도 없이 몰살시키고 큰 승리를 이룩하자 왕은 대단히 기뻐하며 답부에게 그가 싸워 승리한 좌원벌을 식읍으로 주었다.

그러나 답부는 쉬이 받으려 하지 않았다.

《나라의 위기에 한몫바쳐 싸우는것은 신하의 본분이온대 어찌 이런 큰 상을 내리시나이까?!》

《싸움에서 공로보다 그대의 나라 위한 충성이 뛰여남을 기특히 여겨 표창함인줄 알고 사양 말라!》 《네?》

《뛰어난 충성이 아니교야 어찌 뛰어난 전범이 나올수 있었겠느냐!》



## 일상에서 혈압 낮추는 방법

### 혈압을 올리는 의외의 원인

소변을 보지 못하면=중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다. 3시간 동안 소변을 보지 못한 상태로 혈압을 재면 평소보다 수축기압에 4 mmHg, 확장기압에 3 mmHg 더 높은 수치가 나온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상승치는 더 커진다.

흥분을 유발하는 대화=평소 혈압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화를 시작하면 혈압이 높아지기 쉽다.

대화로 인한 혈압 상승은 몇분 동안 지속한다.

입을 움직이는 동작보다 대화의 내용이나 감정의 동요에 따른 영향이 크다. 흥분을 유발하는 대화는 혈압을 올린다.

병원에 갔을 때=혈압을 집에서 잤 때와 병원에서 측정할 때 다른 이들이 있다. 흰옷을 입은 의사를 보면 혈압이 오른다. 수축기압에 10 mmHg, 확장기압에 5 mmHg 정도 높아진다.

병원에서 긴장하거나 불안감을 느낀 탓이다.

칼륨 부족=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신장(콩팥)은 적절한 량의 체액을 유지하기 위해 나트륨과 칼륨을 필요로 한다.

시금치 등 녹색 잎채소를 먹으면 칼륨 섭취에 도움이 된다.

외로울 때=사람들과 교류가 가장 적은 층에 속하는 이들의 혈압을 잰더니 평균 14 mmHg 나 더 높았다.

인간관계에서 거절과 실망의 공포가 지속하면서 생존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생겨 신체가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징후다.

### 쉽게 혈압 낮추는 방법

채소를 풍부하게=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 연구에 의하면 채소 위주의 식사는 혈압을 7 mmHg 정도 떨어뜨린다. 식물성 식품은 혈압을 높이는 나트륨의 함량이 낮고 혈압을 낮추는 칼륨의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잠간의 낮잠=낮잠은 고혈압을 예방할 뿐만이 아니라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압약 만큼이나 효과가 좋다.

연구에 따르면 낮잠을 자는 사람은 5.3 mmHg 혈압 강하 효과를 보였다. 수면 시간과 혈압의 상관관계도 나타났는데 낮잠 1시간에 평균 3mmHg가 낮아졌다.

저녁 식사 후 움직이기=상당수의 사람들이 저녁 식사 후 TV 앞에 앉는다. 저녁 활동량이 떨어지는 리유다.

중간 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혈압 조절이 수월해진다. 무리한 운동 대신 가볍게 산책을 해도 좋다.

집에서 TV를 꼭 봐야 한다면 제자리걸음을 하며 시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고구마

고구마의 원산지는 메히꼬와 남아메리카의 북부지대이다. 약 2000 년전부터 중앙, 북아메리카의 인디안족들이 고구마를 재배하였다고 한다. 고구마도 감자와 같이 아메리카대륙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유럽에 퍼졌다가 그후 에스빠냐상인들에 의하여 동남아시아에 보급되었다.



16세기말에는 중국에 그 재배법과 저장법이 알려졌고 18세기 중엽에 우리 나라에서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메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덩굴식물인 발작물의 한가지, 덩이줄기는 실북모양의 넓은 길등근형이며 흔히 연한 보라색을 띤다.

줄기는 길게 뻗으며 잎은 심장모양이고 7~8월경 잎아귀에서 붉은 보라색의 깔때기모양의 꽃이 네댓개 핀다.

덩이줄기는 당분이 많고 비타민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양물질이 있어 식용으로 또는 식료공업에서 널리 쓰인다.

고구마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항암 효과가 있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작용이 있는 훌륭한 음식 보충 재료로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



## 단어발음에서의 말소리변화

단어를 발음할 때 형태부의 말소리구성은 말소리들이 놓이는 위치와 결합조건에 따라 일련의 말소리변화를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말소리변화라고 하면 현행의 말소리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단어발음에서의 말소리들의 규칙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일정한 역사적시기에 작용하였던 말소리법칙에 의해 맞춤법상으로 고착된 말소리교체현상들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므로 흔히 말소리변화로 취급하지 않는다.

단어발음에서 생기는 말소리변화들에는 크게 소리바꾸기, 소리끼우기, 소리빠지기, 소리줄이기의 네가지가 있다.

소리바꾸기란 단어안에서 어떤 말소리가 그것이 놓인 자리나 이웃한 말소리의 영향에 의해 다른 말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말소리변화현상을 말한다.

소리바꾸기에는 막힘소리되기, 소리났기, 소리따르기, 된소리되기의 네가지가 있다.

막힘소리되기란 [ㄱ, ㄷ, ㅂ] 이외의 울림없는소리들이 소리마디의 종성위치에서 막힘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막힘소리되기는 단어의 끝이나 울림없는소리앞이라는 위치적조건에서만 일어난다.

막힘소리되기에서 울림없는소리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조음위치에서 나는 막힘소리들로 바뀐다. 즉 《ㄱ, ㄷ》은 [ㄱ] 로, 《ㄷ, ㅈ, ㅊ, ㅅ, ㅆ》은 [ㄷ] 로, 《ㅂ》은 [ㅂ] 로 바뀌어난다.

○ 밖 [박] 깎다 [깎따] 부엌세간 [부엌쎄간] 앞 [압] 덮다 [덥따]

○ 발 [반] 말고 [만꼬] 낮 [난] 낮게 [난께] 낮 [난] 빗발 [빈빨]

소리났기란 단어안에서 어떤 말소리가 그 이웃에 있는 같은 종류의 말소리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와 같거나 비슷한 말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소리났기에는 자음이 자음을 났는 경우와 모음이 모음을 났는 경우의 두가지가 있다.

그가운데서 규범적인것으로 인정되는것은 자음이 린접한 자음의 소리성질을 났는 코안소리되기과 혀옆소리되기뿐이다.

코안소리되기란 단어안에서 코안소리가 아닌 자음이 그에 린접한 울림소리의 영향을 받아 같은 조음위치에서 나는 코안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혀옆소리되기란 단어안에서 자음 《ㄴ》이 바로 그옆에 있는 흐름소리 [ㄹ]의 영향을 받아 그와 완전히 같은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주로 혀옆소리형태로 실현되므로 혀옆소리되기라고 한다.

소리토막안에서 울림소리자음앞에 놓이는 막힘소리 [ㄱ, ㄷ, ㅂ]는 그 울림소리의 영향을 받아 해당한 조음위치에서 나는 코안소리인 [ㅇ, ㄴ, ㅁ]로 바뀌어 발음된다.

받침글자로 쓰인 《ㄱ, ㅋ, ㆁ, ㆁ, ㄹ》은 모두 코안소리 [ㅇ]으로 발음된다.

○ 다락논 [다랑논] 부엌문 [부엌문] 닭는다 [당는다] 닭모이 [당모이]

받침글자로 쓰인 《ㅂ, ㅃ, ㅍ》은 입술소리인 코안소리 [ㅁ]로 바뀌어 발음된다.

○ 톱날 [툼날] 감문 [감문] 덩는다 [덤는다] 습니다 [슴니다] 합니다 [함니다]

받침위치에 놓인 《ㄷ, ㄸ, ㅈ, ㅊ, ㅅ, ㅆ》은 코안소리 [ㄴ]로 바뀌어 발음된다.

○ 만며느리 [만며느리] 발머리 [반머리] 젓먹이 [전머기] 빛나라 [빈나라]

○ 옷마을 [운마을] ] 빛는다 [빈는다] 봇나무 [본나무] 있는 [인는]

○ 목란 [몽란] 천리마 [철리마] 훈련 [홀련] 단락 [달락] 전력 [질력]

한 소리토막안에서 《ㄹ》뒤에 놓이는 《ㄴ》은 언제나 [ㄹ]로 발음된다.

○ 별나라 [별라라] 잘나서 [잘라서]

된소리되기란 소리토막안에서 순한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 학교 [학꾄] 있소 [인쑈] 앓다 [안따] 읊다 [움따] 훑다 [홀따] 많다 [만타]

○ 할가요 [할까요] 열사람 [열싸람] 하늘색 [하늘썩] 풀색 [풀썩] 사건 [사건]

○ 문법 [문뻐] 우점 [우뺨] 대가 [대까] 려권 [려뺨] 효과 [효짜] 통행증 [통행쑤]

그러나 《감색》이나 《땅색》과 같이 《ㄹ》이외의 울림소리뒤에서는 《색》이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말줄기가 울림소리 《ㄹ》로 끝나는 용언에서는 울림소리뒤에서의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살다 [살타] 살고 [살꼬] 살자 [살자]



장편소설 **림격정**

홍명희 원작

홍석중 운색

## 량반노릇을 하게 된 종의 아들

(전호에서 이음)

봉학은 계향과 친해졌다. 계향은 비록 천한 기생노릇을 하고있었지만 지조있고 대바르고 침착하고 다정한 여자였다. 그 여자는 종의 딸로 할수없이 기생이 된것을 한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기를 이렇게 만든 량반들을 미워하였다.

계향은 대밭에서 봉학을 만나기 전에 벌써 귀신방에 대한 소문을 통해 그의 이름을 알고있었다. 대밭에서 불쌍한 할머니를 도와나서는 봉학의 의로운 행동을 보고 그는 그가 량반출신의 비장들과는 전혀 다른 훌륭한 사람이라는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다.

봉학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이였다. 계향은 진심으로 봉학을 존경해서 그의 옷을 빨아주고 음식을 만들어주었다. 봉학이 역시 외롭고 불쌍한 계향을 도와주는 일이라면 모든것을 아끼지 않았다.

초여름이 되었다. 이때 왜놈들의 배가 바다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뻗질나게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민심이 소요스러워지기 시작하였다.

감사는 리봉학에게 군사를 주어 위험한 해변가를 순찰하도록 하였다. 봉학은 군사를 거느리고 장흥이라는 고을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물에 오른 왜놈들과 싸워 수십명을 죽였다.

다음날 그는 강진읍으로 갔다. 강진읍의 백성들은 왜놈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그런데 관가에 들어가보니 현감이라는 작자는 술에 취해서 한가하게 바둑만 두고있었다. 봉학은 왜놈들이 코앞에 들어왔는데도 술과 바둑에 미쳐있는 현감이 미웠다. 그는 참을수 없어 현감에게 한마디 빈정거렸다.

《바둑가지구 왜놈도 막을수 있소?》

《왜놈이야 활쏘는 사람이 막을레지.》

봉학은 이 능글능글하고 뻔뻔스러운 량반의 대답을 듣자 기가 막혀 말을 할수 없었다. 다음날 봉학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리포에 도착하였다. 그가 가리포성안에 들어선지 얼마 안되어 왜놈들의 배 네댓척이 앞바다에 나타났다. 지친 군사들이 미쳐 요기도 하기 전에 왜놈들이 물에 올라 성을 치러 들어왔다. 봉학은 자기가 데리고온 군사 백여명중에서 사수 스무명을 성우에 벌려세우고 그들에게 화살을 스무대씩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자기는 그들틈에 걸상을 놓고 걸터앉아서 화살 백대를 옆에 놓았다. 봉학은 군사들에게 왜놈들이 가까이 들어오기 전에는



활을 쏘지 말라고 명령했다. 성밖 들판으로 왜놈들이 새까맣게 몰려오며 불질을 탕탕 하였다. 그러나 성우에는 사람이 없는것같이 조용하고 기발만 바람에 나뭇졌다. 왜놈들의 악악소리가 성밑에서 들려올 때 성우에서 북소리가 났다. 북소리와 함께 화살이 비발치듯 성밖으로 날아갔다. 군사들의 화살은 헛판데 떨어지는것이 많고 또 빗맞는것이 태반이었으나 봉학의 화살은 한대가 날아가면 반드시 왜놈 하나가 꺼꾸러졌다. 봉학이 옆에 놓인 화살을 절반가량 썬을 때 왜놈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날이 저물었다. 가리포첩사는 첫 승리에 기분이 들떠서 술상을 벌려놓으려고 하였다. 봉학은 첩사를 타일러서 왜놈들이 밤에 쳐들어오리라는것을 예견하고 그 준비를 하였다.

봉학은 군사들과 성안의 백성들을 지휘하여 크고작은 돌덩이와 기와장, 질그릇 깨진것들을 주어모아서 여러 무대기를 만들어놓았다.

또 백성들이 집집마다 끓는 물을 준비하도록 하고 긴 화와 짧은 화를 많이 만들게 하였다. 긴 화는 불을 켜것이고 짧은 화는 적에게 던질것이였다.

삼경쯤 해서 왜놈들이 앞뒤성문으로 동시에 쳐들어왔다. 왜놈들은 한쪽으로 불질을 하면서 성우로 기여올랐다. 그러나 성우에서 돌덩이와 기와장, 불꾸레미가 떨어지고 끓는 물이 쏟아져서 왜놈들은 종내 도망치고말았다.

아침때가 지난 뒤에 왜놈들이 다시 쳐들어왔다. 왜놈들은 어제 낮과 밤에 실패를 하여 분통이 터졌는지 사나운 기세로 달려들었다.

놈들의 무서운 불질이 성벽의 돌을 부시고 성문에 구멍을 뚫었다. 왜놈들이 방패에 몸을 숨기고 성밑으로 다가왔다.

성우에서 쏘는 화살은 놈들의 방패때문에 은을 낼수가 없었다. 놈들은 마침내 성밑에까지 들어와서 좌우로 흩어졌다. 놈들의 한패는 성을 부시고 다른 한패는 성을 넘으려고 하였다. 성우에서는 돌덩이들을 내리굴리고 끓는 물을 끼얹었다.

성안의 백성들은 군사들을 도와 부너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떨쳐나섰건만 손이 모자랐다. 드디어 성벽 한곳이 헐리기 시작하였다. 첩사는 겁이 나서 어쩔줄을 몰랐다. 봉학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칼과 창을 가진 군사들을 헐리는 성벽의 좌우에 숨겨두고 활을 가진 군사들은 헐리는 곳 정면에 벌려세웠다. 성벽에 구멍이 뚫어졌다. 왜놈들은 미친듯이 뛰어들어오다가 앞에서 쏘는 화살에 넘어지고 좌우에서 내지르는 창과 칼에 꺼꾸러졌다.

봉학이 군사들과 백성들을 지휘하여 나무와 돌로 성벽의 뚫린 구멍을 막으려고 하는데 왜놈들이 다시 때를 지어 몰려들어왔다. 왜놈의 장수 하나가 앞장에 섰는데 그놈은 갑옷과 투구로 몸을 단단히 감싸서 방패가 없어도 화살을 겁내지 않았다. 봉학은 활로 겨냥하여 그놈의 한쪽 눈을 쏘아맞혔다. 그놈이 눈에 쏘힌 살을 뽑아 내던지며 천둥같은 소리를 지를 때 입이 드러났다. 순간 봉학의 화살이 그놈의 입을 꿰었다. 왜놈들은 쓰러진 체놈들의 장수를 끌고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봉학은 사수들을 이끌고 쫓아나가며 왜놈들을 수없이 쏘아눅혔다.

이때 갑자기 옆에 숨었던 왜놈들이 나타나서 어지럽게 불질을 하였다. 사수 여러명이 왜놈의 불질에 맞고 쓰러졌다. 한동안 불과 살이 오고가다가 불질이 그치며 왜놈들이 물러가기 시작하였다. 봉학은 급히 군사들에게 헐린 성벽을 막게 하



고 백성들을 시켜 불질에 맞은 군사들을 돌보게 하였다. 봉학이 다시 싸울 준비를 하고 성우에 올라가려는데 침사가 숨이 턱에 닿아 달려오면서 소리쳤다.

《구원병이 왔소! 이제 우리가 살았소!》 침사는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흘렀다.

봉학은 성우에 올라섰다. 왜놈들은 벌써 바다가로 도망쳐버리고 성밑에는 강진에서 들어온 우리 구원병의 기치가 휘날리고있었다.

가리포의 싸움소식을 들은 군사들의 부모, 처자, 형제가 다 나와서 자식이나 남편이나 또는 형제가 무서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것을 반겼다. 그러나 봉학이 만은 이와 같이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봉학은 외로운 생각과 부러운 마음이 가슴에 가득차서 울고웃으며 흩어져가는 군사들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서있었다. 이때였다.

《나으리!》 옆에서 귀익은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돌아다보니 계향이였다.

봉학은 자기를 잊지 않고 찾아온 계향의 진심이 고마웠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를 반기는 계향의 얼굴색이 몹시 앓고 일어난 사람처럼 창백했다. 걸음까지도 잘 옮겨놓지 못하는것이였다.

그날저녁 봉학은 계향한테서 자기가 싸움터에 나가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듣게 되었다. 그것은 전주부윤때문에 생긴 일이였다.

이놈은 부임하자마자 첫번째로 한 일이 제 배속에 처넣을 대밭을 고르는것이였고 두번째로 한 일은 얼굴 고운 기생을 골라 자기옆에 두는것이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놈의 눈에 계향이 들었다. 계향은 기생을 노리개처럼 생각하는 부윤의 요구를 받아들일수가 없었다.

계향이 단마디로 거절하자 부윤은 대노하여 사정없이 두들겨팼다. 그리고는 정신없고 쓰러진 계향에게 며칠간 생각해볼 여유를 준다면서 집에 돌려보냈다는것이였다. 계향의 이야기를 들은 봉학의 눈에서는 불이 일었다. 계향은 눈물을 머금으며 봉학에게 말했다.

《저는 매를 맞으며 나으리를 다시는 뵈지 못하는줄 알았어요. 다행히 살아나왔지만 다시 잡혀가서 그 무지스러운 매를 또 맞을 생각을 하니 지금부터 눈앞이 캄캄해요.》

계향의 말을 들은 봉학은 이렇게 대답했다.

《겁내지 말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다시는 부윤이 잡아가지 못하게 지켜줄테다.》

계향은 봉학의 눈에서 약한 사람을 도우려는 의로운 결심을 읽을수가 있었다. 봉학은 계향에게 판비들이 자는 방을 하나 잡아주고 당분간 집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자 부윤이란 놈은 분통이 터져서 펄펄 뛰였다.

보잘것 없는 종의 자식인 봉학이가 당당한 량반인 자기의 일에 대밭때부터 건건이 걸고드는것을 참을수가 없었던것이였다. 그놈은 사령놈들에게 계향을 사흘안으로 꼭 잡아오라고 령을 내렸다. 하지만 감영안에 들어가있는 계향을 부윤의 권세로도 잡아낼수가 없었다. 그러자 부윤은 묘한 꾀를 하나 생각해냈다. 그놈은 사령놈들을 시켜 계향의 집에 불을 지르게 했다.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계향이 험레벌떡 감영안에서 달려나왔다. 이것을 노리고있던 사령놈들이 계향을 잡아서 부윤이 있는 본관으로 끌고갔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봉학이 본관으로 달려가니 문을 지키고있던 사령놈들이



그의 앞길을 막았다. 《왜 막느냐? 너희들은 나를 모르겠느냐?》

《리비장나리를 모를리 있습니까? 본관 사또께서 아무도 들이지 말랍시라는 분부가 계셔서 그러니다.》 《무엇이 어째? 이놈들, 저리 비켜라.》 봉학은 사령놈들을 밀어제끼고 동헌마당에 들어섰다. 부윤이란 놈은 계향을 붙들어매놓고 매를 때리려다가 봉학이 들어서는것을 보고 당황해했다.

봉학은 두말없이 계향에게 달려가 묶은것을 풀어주었다. 부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애들아! 그년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들어라. 놓치면 안된다.》

부윤의 호령을 들은 본관의 장교들과 사령들이 봉학이 앞으로 우르르 모여들었다. 그러나 감히 봉학에게 달려들지는 못했다. 봉학은 동헌마루에 앉아 펄펄 뛰는 부윤에게 짐작게 말했다.

《부윤령감은 벼슬도 낮지 않은 귀한 량반님이신데 불쌍한 녀자를 잡아다가 아무 죄두 없이 매를 때리면 백성들속에서 창피한 뒤소리를 안하겠소? 이 녀자는 내가 데려가니 다시는 손댈 생각을 마시오.》 봉학은 말을 끝내자 계향을 데리고 대문으로 향했다.

부윤은 분통이 터져서 죽을 지경이었다.

《이게 무슨짓이냐? 이젠 저런 상놈한테서까지 이런 행패를 받을만큼 세상이 다 되었던 말이나?》 부윤의 부르짖음소리가 대문밖에까지 들려왔다.

계향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봉학을 쳐다보았다.

《뒤일이 일없을가요?》 《뒤일? 글썸---》 봉학은 말끝을 흐려버렸다.

이후에 닥쳐올 소동이 섰기때문이었다. 봉학과 계향이 근심한대로 부윤이란

놈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감사를 찾아가서 있는 말, 없는 말로 봉학을 중상하고 봉학이 감영의 비장으로 있는 한 자기는 벼슬을 내놓고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위협했다. 감사 리윤경의 립장은 딱했다. 그는 우선 봉학과 계향을 잡아가두었다. 그런데 그들을 잡아가두고보니 백성들의 뒤말이 떠돌기 시작했다. 부윤이 나쁘고 봉학이 옳다는것을 만사람이 다 알고있는터에 덮어놓고 량반인 부윤의 편을 들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봉학과 계향을 그대로 놓아주면 부윤이 윤원형에게 자기를 물어넣을것이였다. 하여튼 리봉학을 하루빨리 자기결에서 떼어버리지 않으면 장차 더 시끄러운 일이 생길것이라고 리윤경은 생각하였다. 그는 백성들의 뒤말도 누르고 봉학을 자기결에서 멀리 쫓아버릴 좋은 꾀를 궁리하던 끝에 제주도 정의라는 고을에 현감으로 보낼것을 결심하였다. 드디어 봉학이 정의현감으로 임명되였다. 봉학은 의지할 곳 없는 계향을 데리고 함께 물길로 수백리나 되는 제주도를 향하여 배를 띄웠다.

정의는 제주도의 소재지인 제주에서 백삼십리가량 떨어진 조그마한 고을이다.

봉학은 이 고을의 현감으로 온 이후에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

우선 왜놈들이 자주 침입하는 곳이라고 고을의 청장년들이 언제나 왜놈들과 맞서 싸울수 있도록 칼쓰기와 활쓰기를 훈련시켰다. 다음으로는 고을에 있는 량반과 부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못살게 굴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하였다. 이렇게 되자 지금껏 량반과 부자와 왜놈들에게 시달려온 백성들이 봉학을 하늘처럼 떠받들게 되었다. 어떤 백성들은 봉학이 오래동안 현감으로 있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기까지 하



였다. 그럴수록 봉학은 백성들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했다.

봉학이 정의에 온지 일년가까이 되었을 때였다. 전라감사로 있던 리윤경이가 내직으로 벼슬이 옮겨졌다. 서울에 올라간 리윤경은 자기의 권세를 넓히기 위하여 믿을수 있는 부하들을 자기 주변에 굽어 모으기 시작했다. 윤경은 무술에 능한 봉학을 다시 끌어다가 오위에 박아넣으려고 생각하였다. 리윤경이 활동을 벌린지 얼마 안되어 정의현감 리봉학을 오위부장으로 임명한다는 임금의 지시가 내렸다.

봉학은 이 지시를 받고 새로 임명된 현감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그가 계향이와 함께 바다가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마중나온 사령이 서울에서 하인이 찾아왔다고 알렸다. 봉학은 관가에 들어앉는 길로 곧 사령들에게 분부하였다. 《그 하인이 어디 있느냐? 불러들여라.》

봉학의 분부를 받고 나갔던 사령들이 그냥 돌아왔다.

《그 하인이 술집에서 지금 술을 마시고있습니다.》

《술을 마신다구 부르지 않았단 말이나?》

《원님께서 부르신다구 권했더니 술을 좀더 먹고 돌아온다구 일어나지 않습니다.》

봉학은 놀랐다. 보통하인이라면 현감이 부르는데 그런 배짱을 부릴리가 없었다.

《어서 빨리 가서 끌구 들어오너라》 봉학은 다시 사령들을 내보내고 궁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조금 있다가 패랭이를 쓴 장대한 사람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사령들과 함께 들어왔다. 봉학은 깜짝 놀랐다. 들어오는 사람이 립걱정이었던 것이다.

봉학은 버선발로 마당에 뛰어내려갔다.

《아니 이게 누구요? 형님, 도대체 여길 어떻게 찾아오셨소?》 봉학은 이렇게 소리지르며 립걱정을 불안았다. 곁에 서있던 장교들과 사령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찾아온 사람이 패랭이를 쓴것을 보면 틀림없이 백정이였다. 그런데 원님이 천한 신분의 백정을 보고 형님이라고 할뿐아니라 버선발로 뛰어나가 불안고 돌아가니 눈이 둥그레질만도 한것이다. 봉학은 립걱정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봉학은 계향을 불러내다가 립걱정에게 인사를 시켰다.

그날 저녁 봉학은 립걱정을 통해 칠장사에 있는 양주팔선생에 대한 소식과 유복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유복이 청석골에 있다는 말을 듣고 봉학은 립걱정을 나무랐다.

《형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유복이가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든단 말이요?》

《내버려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가 무어요? 그녀석을 붙잡아다가 농사를 시키든지 장사를 시키든지 하게 못한단 말이요?》

《허허... 자네가 량반님들하구 같이 밀려다니더니 세상물정을 전혀 모르네그러. 농사나 장사를 해서 편안히 살수 있을것 같으면 왜 유복이같이 진실한 사람이 세상을 엇나간단 말인가?》 립걱정의 말에 봉학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봉학은 그날 밤 립걱정과 한방안에서 자며 청석골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립걱정은 이야기끝에 천왕동이 제주도로 귀양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고 귀양이 풀리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봉학의 벼슬이 서울로 옮겨져서 힘을 쓸수 없다는 말을 듣자 립걱정은 몹시 실망하였다.

립걱정은 갑자기 봉학에게 물었다. 《자네는 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다니, 그런 무슨 소리요?》 《글쎄. 좋은 세상이라구야 할수 없겠지요.》

《내가 다른건 모르지만 이 세상이 망할놈의 세상이라는것은 남보다 더 잘 아네, 내 말 좀 듣게. 그래 학식있는 우리 선생님이 중노릇을 하게 되구 진실하기 짝이 없는 우리 유복이가 세상을 벗어나게 된게 모두 이 망할놈의 세상탓이 아닌가? 그래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걱정은 이렇게 말하며 흰자위가 많은 눈으로 봉학을 바라보았다. 걱정의 입에서 부푼 말이 나올 때 눈에 흰자위가 많이 드러나는것은 어린시절부터 있던 버릇이다. 그래서 봉학은 웃었다. 《형님이 눈을 피상하게 뜨는 버릇이 그냥 남아있구려, 동소문안에서 같이 지낼 때 내가 곧잘 형님의 눈을 훑내내였더니 우리 외할머니가 형님이 나를 배워주었다구 육까지 한 일이 있지 않소? 형님. 생각나시우?》 그러나 걱정은 봉학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말을 계속했다. 《자네는 나더러 유복이를 그렇게 만들었다구 책망하지만 이 망할놈의 세상에 이름없는 우리 상놈들이기를 펴구 살려면 칼을 들구 나서는수밖에 다른 도리가 있나? 이진 상놈이라면 땅 뺏구 집 뺏아서 모조리 알거지를 만들어놓으니 농사두 못해 장사두 못해 버럭 질두 못해---우선 살수가 없으니 야단이 아닌가? 게다가 입 한번 병긋하면 역적이라구 잡아다가 유복이 아버지처럼 죽여버리니 어떻게 해야 좋은가? 량반놈들은 유복이같은 사람을 도적이라구 하지만 정작 도적놈들은 량반놈들일세. 벼슬도 도적질하구 백성의 재산도 도적질하니 그제 바루 큰도적놈들이지 뭔가?》《형님, 그런 속상하는 이야기는 그만두구 다른 이야기나 합시다.》 봉학은 누가 엿들을것 같아서 말머리를 돌려버렸다.

며칠후에 정의현감으로 새로운 사람이 왔다. 봉학은 걱정과 함께 제주도를 떠났다. 제주도에 천왕동을 떨구고 떠나는 걱정과 봉학의 마음은 좋지 않았다.

봉학은 서울에 올라와서 리윤경을 만나 보고 새로운 벼슬인 오위부장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는 짬시간을 내어 양주에 가서 유복을 불러다가 만나보았다.

근 이십여년만에 다시 만나는 그들은 서로 불안고 울었다. 봉학은 제주도에서 걱정에게 말한것처럼 유복을 나무랄수 없었다. 유복이가 그렇게 된것이 량반의탓이라는것을 그 역시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었다. 봉학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죽산 칠장사에 들러 양주팔이도 만나보았다. 양주팔이는 봉학을 바래우면서 상놈이 량반들틈에 끼워 벼슬살이를 하자면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봉학은 오위부장노릇을 하면서 양주팔이의 당부를 명심하고 행동을 극력 조심했다. 그러나 그 조심은 소용이 없었다. 몇달이 지나서 뜻밖의 사건이 터졌다. 봉학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대궐문을 지키는 날이었다. 울긋불긋 요란하게 차린 젊은 녀자가 대궐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것을 봉학이 단속하였다. 알고보니 그 녀자는 윤원형의 집 하녀였다.

아무리 세도있는 윤원형의 집사람이라도 대궐안에 함부로 들어갈수 없는 법이다. 봉학은 그 녀자를 쫓아버렸다. 이것을 알게 된 윤원형은 대노하여 봉학을 잡아다가 매를 안겼다. 그리고 그의 벼슬을 빼앗고 립진강의 나루터를 지키는 별장으로 떨구어놓았다.

그리하여 봉학은 서울에 올라온지 두달도 못되어 계향을 데리고 다시 서울을 떠나지 않을수 없었다. (다음호에 이음)



#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인생을 위하여 부무할!

주변으로 부흥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용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성고려인삼의 고유한 맛과 향기를 내는 치약으로서 이품보호에 특효가 있다.



3.3

శ్రీ హనుమా

